



어느새 수능이
100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고3 수험생들은 그 어느 때보다
긴장된 여름을 보내고 있겠지요.

베이징 올림픽에서 무려 8관왕을 달성해
수영계의 전설이 된 미국의 수영선수
마이클 펠프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매일 하루도
빠짐없이 물속에 있었습니다.”

펠프스 선수처럼
매일 하루도 빠짐없이
수능을 향해 달려가고 있을
고3 수험생 여러분!

몸과 마음 모두 지치지 않고
자신의 경기를 완주하시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CONTENTS

Vol.79 2023년 8월 호

발행일

2023년 8월 1일

발행인

경상남도교육감 박종훈

발행처

경상남도교육청

(51430)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중앙대로 241

Tel. 055-278-1784

편집인

홍보담당관 이종섭

기획총괄

홍보담당사무관 전영부·주무관 채선영·김아경

기획·취재·편집·인쇄

경상남도교육청 홍보담당관(주)큰그림

경남교육, 미래를 만나다

04 특집 기획 | 멘토를 만나다

요즘 아이들과
슬기롭게 소통하는 방법
자녀교육전문가 이은경

08 요즘 아이, 별별 꿈

양산 신양초등학교 4학년
김건우 수영선수

12 경남교육가족을 만나다

김해생명과학고등학교
교사 임종민

16 학교 변신은 무죄

경남 매입형유치원 1호
김해울하유치원

20 열정을 만나는 시간

나무를 진찰하는 <나무의사>
장재영 원장



경남교육, 재미를 만나다

24 방구석 영화관

26 경남교육캘린더

28 힐링필링 경남교육명소

고성에서 보내는 여름휴가

32 즐겁지 아니한家

매주 산행을 떠나는
준영이네 가족

36 토박이말 나들이

38 학교폭력 예방 웹툰

경남교육, 정보를 만나다

40 진로진학 나침판

42 숫자로 보는 경남교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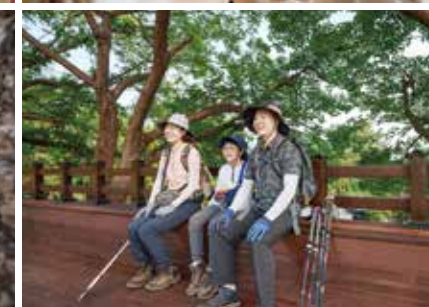
44 경남교육뉴스

46 의정소식

48 도정소식

50 독자기고

51 독자퀴즈



특집 기획 | 멘토를 만나다

요즘 아이들과 슬기롭게 소통하는 방법

배고픔이 가장 큰 어려움이었던 베이비부머 세대(1950~1960년생)는 ‘부모님이 차려준 따끈한 밥’을 먹으며 부모의 사랑을 느끼고, 그 이후 세대(1960~1970)는 어려운 형편에도 애써 만들어준 ‘교육의 기회’를 통해 부모의 사랑을 실감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배가 고프지도 않고 교육의 기회는 충분하다 못해 넘친다고 느끼는 요즘, 알파세대 아이들은 어떤 방식으로 부모의 사랑을 실감할까요? 바로 ‘자신의 생각을 공감해주고 마음을 알아주고 따뜻하게 소통해주는’ 모습을 통해서라고 합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요즘 아이들이 바라는 ‘슬기로운 부모의 소통 방법’은 무엇인지 차근차근 알려드리겠습니다.

자녀교육전문가·전 초등교사 **이은경**

▶ 유튜브 채널 ‘슬기로운 초등생활’ 운영

첫째, 아이에 관한 관심과 이해를
진심으로 표현해주세요.

아이의 일상생활과 학교생활, 친구들과의 관계 등에 관심을 표현하며 대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이의 소소한 이야기에 진심으로 귀 기울이고, 반응하고, 감탄하며 그들의 감정과 경험을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잘 들어주는 사람 앞에서 더 신이 나 이야기를 이어가는 건 아이나 어른이나 모두 같습니다. 그 어떤 대화의 기술보다 중요한 건 아이의 말에 귀 기울여주는 부모랍니다. 아이와의 대화 도중에는 진지하게 듣고 애써 이해하는 척을 하도록 노력하세요. 비록 아이가 꺼낸 말이 부모의 눈에는 유치하고, 사소하고, 쓸데없어 보이더라도 아이의 말에 대해 비난하거나 까닭 없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도록 노력하는 모습도 중요합니다. 아이에게는 매우 중대하고 진지한 사건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지요.

실천

매일 아이와

대화할 시간을 정해두고,

방법

하루씩 실천해보세요.

적어도 이 시간 동안은 아이에게 모든 주의를 기울이고, 전화나 텔레비전 시청 등 다른 일은 잠시 중단합니다. 물론 매일 같은 시간일 필요는 없습니다. 그날그날의 상황에 맞게 유연하게 시도하면 됩니다. 또 아이와 편안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적절한 분위기의 공간도 필요합니다. 자녀의 방도 좋고요, 시원한 저녁 시간에 함께 산책하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눌 수도 있습니다. 그게 부담스럽고 때로 바쁜 일상 중 일부러 시간과 공간을 내기 어렵다면 저녁을 먹으면서 잠깐이라도 좋습니다. 주말, 방학의 카페 데이트도 추천하고 싶고요.

대화 예시

아이 엄마. 오늘 우리 반 교실에 잠자리가 한 마리 들어왔어요.

보호자 와. 그랬어? 정말 깜짝 놀랐겠다. 그래서 어떻게 됐어?

아이 친구들이 모두 소리 지르고, 잡으려고 하고, 사진도 찍었어요.

보호자 재미있었겠네. 우리 딸(아들) 얘기를 들으니 엄마 어릴 적에 있었던 일들이 생각나네. 교실에 잠자리가 들어온 모습을 상상해보니 재미있네. 이야기해줘서 고마워.

둘째, 아이에게 존중과 인정을
표현해주세요.

아이의 의견과 선택을 존중하고 인정하는 것은 초등 이후의 자기 주도적인 공부 습관의 바탕이 됩니다. 아이가 직접 의견을 제시하고 선택을 존중받은 경험이 누적되면 자신을 중요하게 여기는 자기 효능감이 생겨나고, 자신의 선택을 믿고 책임져보려고 하는 주도적인 삶의 태도를 갖기 시작합니다. 초등 시기는 부모의 선택에 따라 아이의 일상과 공부량이 결정되기 때문에 아이에게 결정권을 주지 않은 채 좀 무리하더라도 조금 더 많은 공부를 하게 만들어 더 빠른 속도로 높은 학습 수준을 만드는 것이 중요해보이기도 합니다. 이 지점에서 많은 부모가 혼란에 빠지고, 조급해지고, 뜻하지 않은 시행착오를 겪게 되는 것이지요.

급할수록 돌아가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아이의 의견을 존중하고 인정을 표현하는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공부량이 줄어들고, 실력이 뒤쳐질 것처럼 보이지만 길게 보는 안목과 여유가 그 어느 시기보다 중요하답니다.

실천

방법

아이의 의견을 경청하고,
일상 전반에서 가능한 한 선택의 폭을
넓혀주는 노력을 시작해보세요.

예를 들어 옷차림, 주말 계획, 읽고 싶은 책, 도서관에서 읽을 자리 선택, 메뉴 고르기 등에서 아이가 선택하게 하고, 그 의견을 존중합니다. 또 아이가 어려움을 겪을 때에는 편안하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도록 열린 마음을 내색해주세요. “어떻게 도와줄까?”, “너를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어떤 게 있을까?”와 같은 질문을 통해 아이의 의견을 물어봐주는 것으로 아이의 마음이 든든하도록 도울 수 있습니다.

대화 예시

보호자 아빠가 주문하고 올 동안 먹기 좋은 자리 좀 말아놔 줘.

아이 자리가 이렇게 많은데 제가 아무 데나 골라도 되나요?

보호자 그럼 네가 보기에 가장 편안하고 좋아보이는 곳에서 같이 먹자.

<잠시 후>

아이 아빠. 여기요! 여기로 오세요!

보호자 와. 이 자리 정말 아늑하고 좋네. 우리 딸이 자리를 잘 잡아줘서 오늘은 더 맛있게 편안하게 먹을 수 있겠다! 고마워.

셋째, 적절한 예시와 모델링을
제공해주세요.

아이에게 긍정적인 행동과 태도에 관한 예시를 몸소 보여주고 모델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바람직한 소통 방식과 행동을 자녀에게 가르치기 위해, 부모 자신이 먼저 좋은 예시를 보여주는 방식입니다. 긍정적인 태도와 상호 존중을 중요시하고, 이를 통해 자녀들에게 영감을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이는 부모의 등을 보며 자란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신기하게도 아이들은 부모가 가르친 대로 자라지 않고 본 대로, 부모가 보여준 대로, 부모가 했던 행동을 따라 하며 성장합니다. 이런 아이에게 인생의 선배인 어른으로서 적절한 예시와 모델링을 제공해주는 부모가 되어주세요.

실천

방법

같은 상황에서도 차분하게 대화를 이어가는
모습, 다른 사람들에게 예의를 갖추는 모습,
주변의 이야기를 경청하는 모습, 상대의 의견을
존중하는 모습을 아이에게 보여주세요.

또 가족 구성원 간에 서로를 배려하는 행동을 부모가 먼저 솔선수범하여 보여주는 것도 중요합니다. 좋았던 일, 성공적이었던 일, 뜻대로 된 일만 공유하기보다는 실제로 부모가 가정 밖에서 겪었던 인간관계에서의 갈등과 어려움을 극복해가는 과정을 보여주는 것도 어렵지만 아이를 위한 일입니다.

대화 예시

보호자 오늘 엄마는 회사에서 다른 팀 팀장님과 의견이 안 맞아서 힘들었어. 회의를 세 시간 동안이나 했지 뭐야.

아이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보호자 처음에는 서로 너무 의견이 달라서 기분이 안 좋고, 언성이 높아지기도 했는데, 결국 서로의 의견에서 조



금씩 양보하고 조율해서 최종 기획안을 완성했어. 그래서 겨우 제 시간에 퇴근했지 뭐야.

아이 그러면 엄마랑 팀장님랑 싸운 거예요?

보호자 아니. 사람끼리는 저마다 모두 의견이 다른데, 그걸 서로 대화를 통해서 맞춰가고 양보할 부분은 양보하면서 최종 결정을 내리게 되는 거야. 그 과정이 쉽고 간단하게 끝나는 경우도 있고, 오늘 엄마처럼 오래 걸리는 경우도 많아. 서로 어울려 살기 위한 당연한 방법이야.

자. 어떤가요? 아이와 슬기롭게 소통하는 방법, 쉽고도 어렵게 느껴지시죠? ‘아이를 잘 키우기 위한 노력은 단숨에 결과를 보지 않아도 괜찮다’라는 마음이 가장 중요합니다. 소통을 위한 노력을 오늘 시작하지만 그 결과는 몇 년 후에 부모와의 대화 시간을 편안하게 여기고 유익하리라 믿는 아이의 모습을 통해 확인하게 되리라 생각합니다.

이달의 멘토 이은경 자녀교육전문가

15년간 초등 아이들을 가르쳤던 교사이자 중등, 초등인 두 아들을 키우는 엄마로서 20년 가까이 쌓아온 교육 정보와 경험을 나누기 위해 글을 쓰고 강연을 한다. 지난 4년간 초등공부, 학교생활, 부모성장을 주제로 한 강연을 유튜브와 네이버 오디오 클립에 공유해 온 덕분에 초등 엄마들의 든든한 멘토가 되었다. 현재 ‘슬기로운초등생활’이라는 이름의 유튜브 채널은 누적 조회 수 1,00만 회를 돌파하며, 초등 교육 대표 콘텐츠로서의 자리를 확고히 했다.

이은경 선생님 저서

- 초등 자기주도 공부법
- 초등 매일 공부의 힘
- 우리들의 맛있는 무단횡단
- 이은경쌤의 초등영어회화 일력 365
- 어린이를 위한 초등 매일 글쓰기의 힘
- 참 쉽다 초등학교 입학준비 외 다수





첨병. 당장이라도 뜨거운 햇볕을 피해 시원한 물속으로 들어가고 싶은 요즘. 가슴께에 찰랑이는 물결, 물살을 가르며 나아갈 때 기분 좋은 감촉. 물놀이를 좋아하는 이들이라면 몸이 근질근질해지는 날씨가. 2023년 전국소년체전 수영 부문에서 금상(배영 100m)과 은상(배영 50m)을 수상한 건우도 유독 물놀이를 좋아하는 아이였다. 학교 방과후프로그램으로 처음 수영을 배우던 날에도 그저 물놀이를 하는 건 줄 알았다는 건우. 단지 물놀이를 좋아하는 마음으로 시작해 이제는 수영 선수로서 또 한 번의 뜨거운 여름을 보내고 있는 오늘의 주인공, 양산 신양초등학교 4학년 김건우 선수를 만나보았다.



01 제52회 전국소년체육대회 수상 당시
02 건우가 신뢰하는 김경석 코치



수영보다 더 재미있는 건 없어요

건우는 어릴 때부터 물놀이를 좋아하는 아이였다. 그래서 어머니 김미순 씨는 자연스럽게 건우에게 수영을 배워보지 않겠느냐고 물었다. 초등학교 1학년이던 건우는 수영과 물놀이가 같은 건 줄 알고 좋다고 대답했다. 마침 건우가 다니는 신양초등학교에 수영 방과후 프로그램이 있어 어렵지 않게 수영부에 들어갔다. 그렇게 처음 수영을 접한 건우는 물놀이가 아닌 수영의 기본 호흡부터 제대로 배우기 시작했다.

김미순(어머니) “처음에는 수영 학원을 알아봤어요. 일주일에 두 번 수업인데도 비용이 만만치 않더라고요. 예체능은 매일 하는 게 중요한 것 같은데, 비용이 부담돼서 어찌지? 고민하던 차에 학교 방과후 프로그램으로 수영을 배울 수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매일 수업을 들을 수 있는 데다 비용 부담이 적어서 너무 좋은 기회라고 생각했죠. 게다가 학교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이니깐 더 안심도 됐고요.”

처음엔 물에 뜨는 것도 어려워하던 건우는 차츰 차츰 영법을 익혀 3학년 때부터 선수반이 되었다. 평일에는 7시 30분까지 학교에 도착해 체력 단련을 하고, 학교 후엔 세 시간씩 양산국민체육센터 수영장에서 훈련을 한다. 토요일에도, 방학에도 매주 훈련에 참여하고 집에서는 욕조에서도 발차기를 연습한다. 훈련 강도가 센 날엔 힘들 때도 있지만 그만두고 싶다고 생각하지 않는 이유는 여전히 수영보다 재미



있는 건 없기 때문이다. 건우가 생각하는 수영의 매력은 무엇일까.

“우선 여름에 너무 시원하고요. 다양한 방법으로 멀리 나아가는 느낌이 좋아요.”

끝까지 경기를 포기하지 않는 마음

건우의 주 종목은 배영이다. 3학년 여름까지는 접영에 집중했고, 2022년 전국소년체전 경남도 예선에서는 남자 유년부 접영 선수로 선발되기도 했다. 하지만 전국 대회에서 실력 격차를 느낀 건우는 주 종목을 접영에서 배영으로 바꾸었다. 턴을 통해 남은 경기를 위한 추진력을 얻듯, 배영을 선택한 것은 건우에게 좋은 터닝 포인트가 되었다.

김경석 코치 “건우는 접영도 잘하지만 체격 조건이 배영에 더 적합해요. 등이 발달해 있고, 유연성도 좋고요. 그래서 배영

을 하면 더 실력을 발휘할 수 있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선택은 옳았다. 전국소년체전이 있기 전 3월에 열린 제주한라배전국수영대회에 출전한 건우는 배영 100m에서 1등을 차지했다. 전국 대회에서 1등을 경험한 건 처음이었다. 하지만 아쉬운 결과도 있었다. 배영 50m에서 이른 출발로 실격을 한 것. 김경석 코치는 이 대회가 건우에게 좋은 자극이 되었으리라 말한다. 성적에 대한 자신감과 실력에 대한 긴장감을 동시에 안고 훈련에 임했기 때문이다. 그 덕분일까. 건우는 2023년 전국소년체전 수영 부문(초등 4학년 이하)에서 1등(배영 100m)과 2등(배영 50m)을 차지했다.

“1등 할 줄은 몰랐어요. 결선에서 처음 보는 선수와 붙었는데 초반에는 제가 밀리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턴하고 나서 무조건 따라잡겠다는 생각으로 열심히 했는데 도착하고 나서 제가 1등이란 걸 알았어요. 너무 행복하고 뿌듯했어요.”

그리고 자신이 좋은 성적을 거둔 이유는 김경석 코치의 영향이 가장 크다고 말한다.

“코치님께서 1등 하는 것보다 중요한 건 끝까지 경기를 포기하지 않는 거라고 말씀하세요. 저도 항상 그 말을 기억해서 최선을 다하려고 노력해요.”

수영을 할 땐 1초가 너무 짧아요

건우가 가장 좋아하는 선수는 2020년 도쿄 올림픽 배영 200m에서 한국 신기록을 세운 이주호 선수다. 한 대회에서 우연히 이주호 선수를 만난 건우는 수경 케이스에 사인을 받았다. 이후 수경을 꺼낼 때마다 이주호 선수처럼 멋진 선수가 되겠다고 다짐한다는 건우. 그러기 위해서 올해는 자신의 기록을 단축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말한다.

“현재 배영 50m는 33초 90, 배영 100m는 1분 12초 27이제 기록이에요. 올해 안에 50m는 32초까지, 100m는 1분 10초까지 줄이는 게 제 목표예요.”



03-05 양산국민스포츠센터 수영장에서 매일 훈련을 한다.



그렇다. 스포츠는 1초도 안 되는 짧은 시간으로 승부가 결정되는 세계다. 경기는 다른 선수와 하는 것이지만, 모든 선수는 결국 자기 자신이 세운 기록과 싸우게 된다. 그래서 건우에게는 1초가 1초처럼 느껴지지 않는다.

“경기를 할 땐 1초가 너무 빠르게 느껴져요. 그래서 시간이 가지 않게 붙잡고 싶어요.”

부담되지는 않냐는 물음에 건우는 ‘할 수 있다’는 대답을 들려준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정말로 할 수 있다고. 그리고 씩씩하게 꿈을 이어가는 가장 큰 원동력으로 가족과 수영부 형들을 꼽았다.

“매일 수영장으로 데려다주는 엄마에게도 고맙고, 응원해주는 가족들 모두에게 고마워요. 지난 소년체전 때는 이모할머니께서 직접 피켓을 만들어주셨거든요. ‘수영 국가대표 꿈은 이루어진다.’, ‘김건우 파이팅’이라는 문구가 적힌 피켓이었는데 제가 경기하는 동안 수영부 형들이 열심히 흔들어주었어요. 그게 엄청 큰 힘이 되었어요.”

다가오는 전국 대회를 준비하며 오늘도 수영장에서 1초와의 싸움을 이어가고 있는 건우. 때론 지치고 힘든 날이 있더라도, 레인 밖에서 응원하는 이들이 있다는 걸 잊지 않기를 바란다. 그 힘으로 다시 힘차게 턴을 해 목표를 향해 달려가기를. 이주호 선수처럼 멋진 배영 선수가 되어 누군가의 꿈이 되어줄 수 있기를 바라본다.



박가람
동물산업과 3학년

이서연
식품가공과 3학년

김해생명과학고등학교 임종민 선생님

너희가 만들어 갈
특별한 미래가 기대돼!

저마다 다른 학생들이 각자의 꿈을 충실히 키울 수 있도록 돕는 것. 교육의 목적이란 바로 여기에 있다.

특정 분야 인재와 전문 직업인 양성을 위한 교육 과정을 운영하는 ‘특성화고등학교’도 같은 이유에서 존재한다.

현재 경남에는 30개의 특성화고등학교가 있고 9,302명의 학생(2023.3.1.기준)들이 자신의 진로를 구체적으로 그려나가고 있다.

그중 김해생명과학고등학교는 농업계 특성화고등학교로 관련 분야 취업을 희망하는 학생들에게 특히 인기가 높다.

그 인기의 비결은 무엇일까. 식품가공과 임종민 선생님을 찾아가 물어보았다.

Q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A 안녕하세요. 저는 김해생명과학고등학교에서 4년째 근무 중인 교사 임종민입니다. 올해는 식품가공과에서 바리스타 수업을 맡고 있어요.

Q 특성화고등학교 교사를 희망하신 이유가 궁금해요.

A 대학에 원서를 넣을 때 고민이 많았어요. 교사가 되고 싶기도 했고, 먹는 것을 좋아해 식품을 더 공부하고 싶기도 했거든요. 그러다 특성화고등학교에서 식품과 관련된 전문교과 교사를 할 수 있는 학과가 있다는 걸 알게 됐고 ‘아, 그럼 이 길이다!’ 싶었죠. 두 마리 토끼를 한 방에 다 잡은 셈입니다.

Q 김해생명과학고등학교를 소개해주세요.

A 90년 역사를 가진 농업계 특성화고등학교로 농생명 산업 기술 인재 양성을 위한 동물산업과, 원예조경과, 농산업기계과, 식품가공과 총 4개 학과*를 운영하고 있어요. 전체 교육 과정에서 실습 수업이 70% 이상을 차지하고, 약 30개의 최신식 실습 시설을 갖추고 있죠. 또 선생님들의 평균 연령이 약 37세로 매우 젊은 것도 장점입니다. 그만큼 수업에 열정이 넘치시거든요. 그리고 우리 학교는 일반계 고등학교 교육 과정과 다르기 때문에 대부분 졸업 후 취업을 희망하는 학생들이 입학합니다. 평균적으로 졸업생 중 50%는 취업을 하고, 나머지 50%는 대학 진학, 창업, 가업 승계 등으로 진로를 정하고 있습니다.

Q 교육 과정 특성상 실습 환경을 갖추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A 맞아요. 우리 학교는 교실 외에 27개의 실습 시설을 갖추고 있는데요. 학과별로 살펴보면 동물산업과에는 말사

◆ 김해생명과학고등학교 4개학과

- ① 동물산업과 각종 동물산업 관련 기술인 육성을 위한 마필관리, 애견미용 기술, 반려동물 행동교정 기술 등 과목 운영
- ② 원예조경과 원예·조경가 양성을 위한 산림자원기술, 화훼장식기술, 조경 기술, 토피어리 제작 등 과목 운영
- ③ 농산업기계과 농업 기계 기술인 육성을 위한 농업기계공학, 피복아크용접, 기계제도 등 과목 운영
- ④ 식품가공과 식품 산업 전문 기술 인재 육성을 위한 식품 위생, 제과제빵, 한국조리, 발효식품가공, 바리스타 등 과목 운영



01 임종민 선생님이 담당하는 바리스타 수업
02 애견미용과 실습 수업

육실·애완동물미용실·소동물사육실 등이 있고, 원예조경과에는 스마트팜·화훼장식실·채소재배실·조경설계실·조경시공실 등이 있어요. 농산업기계과에는 CAD실·피복아크용접실·기계정비실·공작실 등이 있고, 식품가공과에는 제과제빵실·농산식품가공실·조리실·바리스타실 등이 있습니다. 특성화고등학교에서는 다양한 실습 과목에 맞는 장비·기구·기계는 물론 이를 보관하고 활용할 수 있는 실습실이 필수적으로 구축되어야 해요. 그래야 학생들이 취업 현장에 나갔을 때 필요한 실무 능력들을 교육할 수 있으니까요. 그런 면에서 우리 학교는 최적의 환경을 갖추고 있다고 할 수 있지요.

Q 학생들의 진로 탐색과 취업을 돕는 다양한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계시죠?

A 네. 대표적으로 3학년 학생들을 위한 ‘맞춤반’ 프로그램을 소개하고 싶어요. 맞춤반은 학교 선생님들이 취업처를 발굴하고 그곳에서 담당할 직무를 분석하여 이를 학생들에게 안내하는 프로그램이에요. 각 업체에 취업을 희망하는 학생들은 면접을 통해 산업체-학생-학교 삼자협약을 맺게 되고, 소정의 교육을 받은 후 해당 업체에 현장실습이나 취업을 할 수 있어요. 이 업체들은 학교와 교육청에서 학생들의 취업처로 적합한지 사전 점검하여 협약하는 우수한 업체예요. 학생들의 취업 만족도가 높아 학생들에게 인기가 많은 프로그램이죠. 그리고 각 전공마다 관련된 자격증이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03 원예조경과
04-05 농산업기계과
06 임종민 선생님

정규 수업만으로 취득이 어려운 학생들이나, 본인의 전공이 아닌 타 전공 관련 자격증을 취득하고 싶은 학생들을 위해 다양한 동아리와 방과 후 수업도 운영하고 있어요. 물론 모두 무료예요.

Q 3학년부터는 타 교과 실습 수업도 선택해서 들을 수 있다고요?

A 고교학점제 운영으로 타 전공 실습 수업을 선택해서 들을 수 있습니다. 이것을 ‘융합수업’이라고 부르는데요. 우리 학교에서 운영하는 전공 수업은 각각의 고유성이 있으면서도 서로 연계될 수 있는 전공이에요. 예를 들어 식품가공전공 학생이 바리스타를 꿈꾸고 있어 미래에 카페를 창업한다고 했을 때, 화훼장식과 애견미용을 융합 수업으로 배웠다면 자신의 카페를 예쁜 꽃으로 직접 인테리어 할 수도 있겠고 나중에는 애견 카페로까지 확장할 수도 있겠죠?

Q 특히 기억에 남는 졸업생이 있으신가요?

A 제과제빵사로 취업을 준비하며 학교 생활을 정말 열심히 한 친구였어요. 졸업 후 부산에 있는 빵집에 취업했고, 근면·성실하게 근무하며 꿈을 키우는 모습이 멋지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학교 방과 후 수업 외부 강사로 섭외해 학교 후배들을 대상으로 수업도 하곤 했어요. 그리고 얼마 전 빵집 창업을 한다고 연락이 왔어요. 나중에 우리 학교 학생들을 취업시켜줄 사장님이 될 수도 있겠죠? 정말 소중한 인연이에요.

Q 학생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면?

A 우리 학교에 입학한 특별한 학생들아, 너희가 정말 자랑스러워. 선생님 학창 시절에는 누구나 대학에 가야만 한다는 사회적인 분위기가 있었고, 학력을 중요시했어. 하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아. 학력보다는 능력을 중요시하는 시대로 바뀌고 있거든. 너희는 일찌감치 좋아하는 분야를 선택했고 전문성을 키우기 위해 다양한 것들을 배우고 있어. 그 과정에 대학이 필요하다면 대학을 가면 되고, 대학을 가지 않아도 괜찮아. 너희가 스스로 선택하는 길을 도중에 포기하지 않도록 항상 도와주고 응원할 거야. 너희가 만 들어나갈 특별한 미래가 기대된다! 김해생명과학고 학생들 모두 파이팅!

내가 김해생명과학고등학교를 선택한 이유

박가람 3학년·동물산업과 애견미용 전공 저는 어릴 때부터 동물에 관심이 많아서 반려동물과 관련된 전공이 있는 이 학교를 선택했어요. 우리 학교 장점은 많지만, 우선 실습실이 최근 리모델링을 마쳐서 쾌적하고요. 실습복, 실습 도구도 다 지원해주셔서 부담 없이 실력을 기를 수 있어요. 또 선생님들도 세세하게 잘 가르쳐주셔서 제 꿈도 더 확실히 찾을 수 있게 됐어요. 이 학교에 오길 정말 잘한 것 같아요.

이서연 3학년·식품가공과 제과제빵 전공 고등학교 진학을 앞두고 취업과 대학 중 하나를 선택하는 게 어려웠어요. 그런데 우리 학교는 취업뿐 아니라 대학 진학도 함께 설계해준다는 게 좋았어요. 저는 졸업 후 베이커리 카페 창업이 목표인데요. 올해 바리스타 수업이 신설돼서 너무 좋고, 꿈을 이루기 위해 필요한 능력을 친구들과 재미있게 배울 수 있다는 게 좋아요. 그리고 타 전공으로는 제과제빵과 전혀 관련이 없는 지게차 수업을 듣고 있어요. 학교가 아니면 배울 기회가 없을 것 같기도 하고, 지게차 운전 자격증이 취업을 1위 자격증이라요. 다가오는 여름방학 때 자격증을 따는 게 목표입니다.

2024학년도 특성화 고등학교 입학전형 일정

원서접수	특별전형	2023.11.23.(목)~11.28.(화)
	일반전형	2023.12.1.(금)~12.5.(화)
전형일자	특별전형	2023.11.29.(수)~11.30.(목)
	일반전형	2023.12.6.(수)~12.7.(목)
합격자 발표	특별전형	2023.12.1.(금)
	일반전형	2023.12.8.(금)

특정분야 인재양성 특성화고

거제여자상업고, 거창승강기고, 경남간호고, 경남관광고, 경남로봇고, 경남산업고, 경남자동차고, 경진고, 김해생명과학고, 김해한일여고, 남해정보산업고, 마산공고, 밀성제일고, 사천여고, 선명여고, 신반정보고, 진영제일고, 진주기계공고, 한국과학기술고, 창녕슈퍼텍고, 창원공고, 창원기계공고, 초계고, 한일여고, 함양제일고, (경남 자영고, 경남정보고, 경남항공고, 경남해양과학고, 김해건설공고)

※ 일반고 특성화과 [삼가고(조리과),창녕여고(보건간호과)]
※ 체험위주 특성화고 태봉고, (간디고, 지리산고, 합천평화고)



사립 유치원에서 공립 유치원으로 새롭게 태어나다

김해율하유치원



유치원은 우리 아이가 경험하는
‘처음’ 학교인 만큼, 보호자의 관심이 높다.
특히 공립 유치원은 취원을 희망하는 수요에 비해
늘 정원이 부족해 보호자들의 아쉬움이 컸다.

이에 경상남도교육청은 유치원 교육의 공공성을
확보하고 공립 유치원 취원율을 높이기 위해
2019년부터 ‘매입형 유치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사립 유치원을 매입해 공립 유치원으로
전환하는 사업이다. 그중 김해율하유치원은
2020년 9월, 경상남도교육청 매입형 1호로 개원했다.

기동만 남겨두고 모두 새롭게 바꾸었다는
김해율하유치원으로 함께 가보자.

공간을 바꾸면 아이들이 행복해진다

김해율하유치원은 2020년 9월 1일, 공립 유치원으로 새로
게 태어났다. 1대 원장은 40여 년 경력의 유아교육 전문가
박해란 원장이 맡았다. 그는 유치원 설립 형태뿐 아니라 ‘아
이들이 행복한 유치원’으로 만드는 대대적인 변화가 필요
하다고 느꼈다. 그 마음으로 가장 먼저 시작한 것이 공간 혁
신이다.

“10년 된 유치원을 매입했기 때문에 시설이 노후화되어 있
어 걱정이 많았어요. 어린아이들에게는 특히 시설 환경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기동만 그대로 둔다는 생각으로 아이
들이 먹고, 공부하고, 노는 공간을 전부 바꾸었어요. 처음엔
우려를 표하는 보호자님도 계셨지만, 조금만 참으면 우리
아이들이 더 행복해질 수 있다고 설득을 했죠. 결과적으로
는 아주 만족하고 계십니다.”

김해율하유치원을 둘러보면 아이들이 다양하게 놀 공간이
 많다는 점이 눈에 띈다. 특히 2021년 유치원 최초로 학교공
간혁신 자율형 사업 선정을 통해 옥상에 마련한 ‘하늘꿈터’
는 박해란 원장에게도, 아이들에게도 특별한 놀이터다.

“처음 유치원에 왔을 때 옥상은 버려진 공터였어요. 한동안
은 머리에 쓰레기를 이고 산다는 생각에 잠이 안 올 지경이
였지요. ‘어떻게 하면 아이들이 옥상에서 안전하고 재미있
게 뛰어놀 수 있을까?’ 그 고민의 해답이 바로 공간혁신이
었죠.”

‘하늘꿈터’ 놀이터가 특별한 이유는 아이들은 물론 교사, 보
호자가 함께 머리를 맞대고 설계 과정에 참여했기 때문이
다. 특히 본원 만 5세 유아 48명이 공간혁신 촉진자와 함께
6차례의 워크숍에 참여하여 ‘우리가 원하는 놀이 공간’을
설계하기 위한 의견을 내고 나누는 기회를 가졌다. ‘하늘꿈
터’라는 이름도 아이들의 투표로 정했다. 이를 바탕으로 유



- 01 하늘꿈터놀이터에서 뛰노는 아이들
- 02 옥상에 조성된 하늘꿈터놀이터가 보인다
- 03 박해란 원장
- 04 자연친화적인 모래놀이터
- 05 매주 월요일 <초록의 날> 활동 모습
- 06 아이들이 직접 작물을 심고 기르는 텃밭

아들의 창의 놀이 공간인 모듈형 ‘만들기 교실’, 대근육 활동을 위한 ‘집라인’, ‘암벽타기’, ‘오름대 놀이’ 등이 옥상에 마련됐다. 또한 실내에는 블록놀이실과 요리활동실을 갖췄다.

“한 아이가 하늘꿈터를 보고 했던 말이 기억나요. ‘우리가 이렇게 멋진 걸 만들었다고요?’”

아이들에게 중요한 건 잘 놀고 잘 자라는 것

공간 혁신만큼 중요한 건 수업 혁신이었다. 2021년 행복학교(경남형 혁신학교)로 선정된 김해울하유치원은 배움과 협력 중심으로 모든 수업 과정을 재구성했다. 또한 ‘유아·놀이중심교육과정’ 실현을 위해 사립유치원에서 운영하던 특성화 교육부터 없었다.

“정년퇴직을 앞두고 마지막 근무지로 선택한 곳이 김해울하유치원이에요. 제가 바라는 건 하나였어요. ‘아이들 웃음 소리를 듣고 싶다.’ 그런데 막상 와보니 아이들이 잘 웃질 않는 거예요. 이유가 뭘까 찾아보니 유치원에서 너무 많은 학습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특성화교육 대신 노는 시간을 충분히 돌려주었죠. 그제야 아이들 웃음소리를 들을 수 있었어요.”

물론 박해란 원장의 결정에 의아함을 표하는 보호자도 있었다.

“보호자님들께는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저 또한 우리 아이들이 행복하고 건강하게 자랄 수만 있다면 어떤 것도 하겠다. 하지만 제 경험과 철학으로는 유아기에 학습에만 집중하는 건 발달에 도움 되지 않으니 지켜봐달라’고 설득을 했죠. 선생님들께도 그랬어요. 우리가 여기에서 ‘유아·놀이중심교육과정’을 제대로 한번 실현해보자고요.”

박해란 원장이 말하는 ‘놀이를 통해 배운다’는 건 이런 것이다. 창의력은 배워서 습득하는 게 아니다. 예를 들면 블록 놀이 중에 ‘이 블록을 어떻게 해야 멋지게 완성할 수 있을까?’ 상상하는 시간을 통해 길러지는 것이다. 또한 직접 요리를 해보면서 열을 가하면 물질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보고 과학 원리를 익히는 것과 같다. 박해란 원장은 말한다.



“잘 놀고, 잘 자라는 것. 우리 아이들에게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나요?”

행복이 넘치는 김해울하유치원

김해울하유치원은 ‘최초’가 많다. 2022년엔 경남 유치원 중에서 유일하게 교육부 탄소중립 중점학교로 선정되었다. 이를 바탕으로 텃밭 생태활동, 숲체험 프로그램, 업사이클링 놀이데이, 매주 월요일 초록의 날을 운영하고 탄소중립실천수첩을 제작해 유아들이 일상에서 탄소중립생활을 실천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또한 탄소중립 보호자 동아리, 탄소중립 캠페인 등 가정과 지역사회로 범위를 확장해 아이들의 배움이 하원 후에도 이어질 수 있도록 돕고 있다. 김해울하유치원은 탄소중립학교 우수 사례로 선정돼 2022년 10월 ‘아름다운교육대상’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김해울하유치원은 올해 개원 4년 차를 맞았다. 박해란 원장

은 말한다. 그동안 숨 가쁘게 달려오며 많은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었던 것은 선생님들의 열정 덕분이라고.

“우리 선생님 대부분이 개원과 함께 신규 발령을 받아 오신 분들이에요. 우리 유치원의 역사를 함께 만들어오신 거죠. 보호자님들께선 우리 선생님들을 ‘전문성 있고 친절하다’라고 말씀해주시더라고요. 교사에게 이보다 더 좋은 찬사가 있을까요? 그리고 행정실과 조리실에서도 맡은 역할을 충실하게 해주신 덕분에 함께 행복한 유치원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김해울하유치원 아이들은 방학을 기다리지 않는다. 유치원에서 보내는 시간이 더 즐겁기 때문이다. 아이들이 더 머무르고 싶다는 마음보다 더 가치 있는 평가가 있을까? ‘아이들은 놀면서 자란다’는 믿음이 공간으로 실현된 곳. 김해울하유치원 원가는 이렇게 끝이 난다.

노래하고 춤추고 나누고 배려하며
얼굴에 밝은 미소 웃음이 피어나요
행복이 넘치는 김해울하유치원

열 / 정 / 을 / 만 / 나 / 는 / 시 / 간

나무의 표정을 읽는 사람 나무의사 장재영

Jang Jae Young

나무 청진기를 들고 왕진 가는 ‘나무의사’

“저희는 이 차를 나무병원 앰블런스라고 불러요.”

나무를 진단하는 모습을 보여주려 인근 공원으로 향하는 길에 장재영 원장이 말했다. ‘앰블런스’ 트렁크에는 왕진 가방이라 불려도 될 법한 장비 가방이 두 개, 한눈에도 무거워 보이는 기계들이 여럿 실려있다. 대표적인 장비는 ‘나무 청진기’라 불리는 수목활력도측정기. 나무에 탐침 부분을 꽂아 나무 내부에 있는 수분과 이온 함량을 측정해 건강 상태를 파악하는 장비이다. 이외에도 토양진단기, 답압측정기 등 장비를 활용해 나무 주변의 환경까지 진단하는 모습이 진짜 의사와 많이 닮아있다.

“나무가 있는 곳까지 왕진을 가고, 증상에 대해 대화할 수 없다는 것을 제외하고는 사람을 진단하고 치료하는 과정과 비슷해요. 사람의 생활 환경과 습관을 확인하듯 나무 주변의 토

살아있는 모든 것들은 때때로 아프다.
그래서 사람 곁에는 의사가 있고, 동물 곁에는 수의사가 있으며, 나무 곁에는 ‘나무의사’가 있다.
나무의사 제도는 ‘나무 돌보는 법’으로 알려진 개정 산림보호법에 따라 2019년 도입됐다.
지금까지 배출된 나무의사는 전국에 1,100여 명.
나무에 활력과 생명력을 불어넣는 나무의사의 세계를 장재영 원장에게 들어보았다.

양 상태를 확인하고, 증상에 맞는 약을 사용하고, 필요할 때는 외과적 수술도 합니다.”

나무는 평생의 숙제

장재영 원장은 2021년 나무의사로서의 삶을 시작했다. 조경 식재공사업을 하는 아버지의 영향으로 일찍부터 조경 관련 업무를 해왔지만 나무의사가 되는 일은 또 다른 도전이었다. 수목생리학, 토양학, 병리학, 해충학, 관리학 등 나무의 삶을 둘러싼 모든 것을 알아야 했다. 실제로 나무의사는 합격률이 20% 내외일 정도로 어려운 시험으로 알려져 있다.

“나무의사들끼리는 ‘나무는 평생의 숙제’라고들 해요. 책에는 ‘이 나무는 이러이러한 환경에서 제대로 자라지 못한다’라고 적혀 있지만 실제 현장에 가보면 ‘네가 왜 여기서 나와?’ 싶을 정도로 잘 자라고 있는 나무들도 있어요. 살아있는



생명이다 보니 자연과 환경에 적응을 한 거죠. 이론과 경험
이 두루 필요한 일이에요.”

나무가 아픈 이유는 다양하다. 병충해를 입기도 하고, 햇빛
을 너무 많이 받거나 너무 적게 받아도, 뿌리가 너무 얇거
나 너무 깊게 심겨 있어도 문제가 생긴다. 특히 나무의사는
5월부터 9월 사이가 가장 바쁜데, 습도가 높은 계절인 만큼
나무가 쉽게 썩고 병해충 번식도 빠르기 때문이다. 얼마 전
채취해 온 소나무 시료라며 보여준 나뭇가지에서는 여름철
크게 기승을 부린다는 가루각지벌레를 확인할 수 있었다.
육안으로는 그저 흰 가루처럼 보였지만 현미경으로 들여다
보니 꿈틀꿈틀, 벌레가 분명했다.

“‘의사’라는 단어 때문인지, 가운 입고 펜 들고 마냥 깔끔
한 일만 하는 직업이라 생각하는 분들도 있어요. 사실은 흙
묻고 벌레 붙는 일은 일상이고, 산도 자주 타야 하고, 얼마
전에는 감나무를 치료하러 갔다가 차 바퀴가 빠진 적도 있
고… 돌발 상황이나 체력적인 면도 어느 정도 각오하고 시

작해야 해낼 수 있는 일이에요. 그래도 고사 직전의 나무가
제 손에서 살아나는 걸 보면 보람을 많이 느껴요.”

반려식물, 반려수목

어떤 나무는 더 오랫동안 기억에 남기도 한다. 한 학교에서
만난 소나무는 수세가 처지고 솔잎이 누렇게 변색돼 학교
사람들의 걱정을 사던 중이었다. 해당 소나무는 특히 중앙
현관 바로 옆에 있어 보는 눈이 많았던 상황. 진단 결과 토
양이 문제였고, 생육 환경 개선 작업 끝에 소나무는 초록을
되찾았다. 학창 시절을 떠올리면 교정의 아름답디 플라타
너스나 금목서 향기를 기억하는 사람이 있듯, 학창 시절 추
억의 중심에 나무가 서 있을 때가 종종 있다. 더욱이 수십
년 동안 한자리에서 학생들과 함께 성장해 온 소나무라면,
그런 나무를 맥없이 떠나보내고 싶은 사람이 있을까.

“반려식물이라는 말도 있잖아요. 나무가 상하면 ‘그냥 베어

내면 되지’라고 생각하는 것은 옛날 일이고, 요즘은 사람들
의 인식도 많이 바뀌어서 나무도 생명이고 친구라 생각하
는 분들도 많아요. 수목과 관련된 과학기술도 많이 발달했
으니 그런 부분을 잘 활용해야죠.”

장재영 원장은 우리 주변에 흔한 수종 중 하나인 소나무는
‘참을성이 많은 나무’로 증상이 서서히 나타나는 반면, 활
엽수는 증상이 빠르게 나타난다고 설명했다. 안타까운 것
은 보통 사람들이 나무의 병증을 인식하고 나무병원에 연
락했을 때는 이미 한발 늦은 경우가 많다는 것. 사람이 정
기검진이나 예방접종으로 건강을 관리하듯 나무도 예찰이
필요한 이유라고 했다.

“저희는 학교나 아파트, 기업, 관공서 등 생활권에 있는 수
목들을 주로 다루는데, 연간 관리로 나무를 돌보기도 해요.
주기적으로 방문해 나무 상태를 확인하고 무엇이 필요한지
확인하고 처치하는 거죠. 요즘처럼 봄이 일찍 시작되는 등
이상기후가 나타날 때는 이런 연간 관리가 나무를 지키는
데 도움이 되죠.”

나무의 표정을 읽는 사람, 나무의사. 그래서 장재영 원장은
나무의사가 가져야 할 자질로 관찰력과 집중력을 꼽았다.
평소 자연에 관심이 많고 차분하게 주변을 잘 관찰할 줄 아
는 성격을 지닌 학생이라면 나무의사라는 직업을 권하고
싶다고 전했다. 전공은 건설조경디자인, 바이오, 산림자원,
생명공학, 원예 등 수목진료 관련 학과를 이수해두면 추후
시험에 응시하기 용이하다.

“현재 제도적 한계상 나무가 어디에 있느냐, 문화재냐 등에
따라 나무의사가 돌보지 못하는 나무들이 있어요. 나무가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 가서 그 나무를 치료하고 살리고 싶
은 것이 나무의사로서 바람입니다.”

나무의사 제도란?

‘나무의사(또는 수목치료기술자)’ 자격증을 가진 사람만 나무를 관리·치료할 수 있도록
한 제도. 산림청 지정 교육기관에서 150시간 교육을 이수하고 수목보호기술자, 문화재
수리기술자, 수목치료기술자, 산림·조경기능사 등의 자격증을 갖고 있어야 시험을 치를
수 있으며 1·2차 시험을 모두 합격해야 한다.



- 01 나무의 썩은 부분을 파내고 약품처리 후 황토를 바르고 있다
- 02 속이 썩은 나무는 안전사고로 이어질 우려가 있어 꼭 치료가 필요하다
- 03 나무 진단에 필요한 장비를 정리 중인 나무의사
- 04 소나무 시료를 현미경으로 분석 중인 장재영 원장
- 05 수목 진단의 기본, 수목활력도측정기





영화 속 주인공과 함께 만드는 여름방학의 추억

올해 여름도 어김없이 뜨겁습니다.
이토록 무더운 날엔 시원한 실내가 가장 좋은 피서지죠?
그렇다면 우리가 고민해야 할 것은 하나입니다.
집에서도 신나는 여름방학을 보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지난 7월 호에서 소개한 독서로 떠나는 피서도 좋지만,
이번에는 영화 속 주인공들이 보내는 여름방학으로
홀짝 떠나보는 영화 여행을 권해드립니다.
재미있는 영화는 재미있는 추억으로 남는 법이지요.
모두 즐거운 영화 여행 떠나기를 바랄게요!

MOVIE • 테스와 보낸 여름



개봉 2020.9.10. 감독 스티븐 바우터루드 등급 전체 관람가 장르 드라마
국가 네덜란드·독일 상영시간 84분

최대한 많은 추억을 모으거라.

영동한 소년 '샘'은 가족과 함께 떠난 바닷가 휴양지에서도 죽음에 대해 고민하는 중이다. 지구에 남은 마지막 공룡은 어떤 마음이었을까 상상하던 '샘'은 언젠가 혼자 남겨질 경우를 대비해 '외로움 적응 훈련'에 돌입한다. 그런데 섬에서 만난 소녀 '테스'로 인해 계획에 차질이 생기기 시작한다. 첫 만남에 다짜고짜 살사 춤을 추자고 하는 더 영동한 소녀 '테스'는 어디로 튈지 알 수 없는 행동으로 '샘'을 놀라게 한다. 그러던 중 어른들은 모르는 '테스'의 비밀스러운 계획을 알게 된 '샘'은 이에 동참하게 되는데... 얼마 남지 않은 여름의 끝, 그 전에 미션을 수행해야 한다!

혼자도 좋지만, 함께여서 더욱 좋은 '샘'과 '테스'의 인생을 건 여름 프로젝트가 시작된다!



MOVIE • 꼬마 니콜라의 여름방학

개봉 2014.8.21. 감독 로랑 티라르 등급 전체 관람가 장르 코미디
국가 프랑스 상영시간 92분

야호 여름방학이다!

방학을 맞아 가족들과 바캉스를 떠난 니콜라! 여행지에서 새로운 친구들을 사귄다. 호텔 주인 아들이라 바캉스가 따로 없는 '블레즈', 뭐든지 주워먹는 땅거지 '프뤼튀에', 영국식 영어 악센트 프랑스어를 작렬하는 '드조드조', 울보 '크레팽', 우기기 대장 '곰므'까지! 그런데 이게 웬 날벼락? 아빠 친구의 딸인 부릅눈 눈의 수상한 그녀 '이자벨'과 결혼시켜야겠다는 것이 아닌가! 마리와와 결혼을 꿈꾸던 니콜라는 억지로 생긴 이 '썸녀'를 제거하기 위해 친구들과 작전에 나선다. 그런데 자꾸만 이자벨에게 눈길이 가는데... 니콜라의 잊지 못할 여름방학은 지금부터 시작이다!



MOVIE • 기쿠지로의 여름

개봉 2002.8.30. 감독 기타노 다케시 등급 전체 관람가 장르 코미디
국가 일본 상영시간 121분

**이건 천사의 종이라는 거야. 힘들고 슬픈 일이 있을 때
이 종을 울리면 천사가 와서 도와준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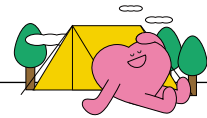
모두가 기다리던 여름방학. 하지만 마사오는 전혀 즐겁지 않다. 할머니는 매일 일을 나가시느라 바쁘고 친구들은 가족들과 함께 바다나 시골로 놀러 가버려 외톨이가 되었기 때문. 어느 날 먼 곳에 돈을 벌러 가셨다는 엄마의 주소를 발견한 마사오. 그림 일기장과 방학 숙제를 배낭에 넣고 엄마를 찾아 여행길에 오른다. 52세 철없는 어른과 9세 걱정 많은 소년. 그들이 마침내 찾은 것은?!



이달의
경남교육 행사를
소개합니다

8
타오름달
2023

- 가야산독서당 정글북
- 김해도서관
- 김해지혜의바다도서관
- 마산도서관
- 마산지혜의바다도서관
- 유아교육원 김해체험분원
- 유아교육원 진주체험분원
- 창원도서관

SUN	MON	TUE
		1 ● 9:20~12:00 / 1층 가락국실 / 2023년 여름 독서교실
6 	7 ● 10:00~15:00 / 김해체험분원 / 자연과 친구되는 유아 생태체험 (31일 까지)	8 ● 9:00~11:50 / 해담 3층 해담홀 / 체험 <제107회 여름 독서교실> (11일 까지)
13 ● 14:00 / 책담 2층 책벗 / 체험 <책담 하루 수업>	14	15 
20 ● 10:00~12:00 / 꿈담 3층 꿈5 / 체험 <일상을 배우는 취미공간>	21 ● 10:00~17:00 / 진주체험분원 누리집 / 9월 토요일가족체험 사전신청기간(23일 까지)	22
27 ● 10:00~12:00 / 꿈담 3층 꿈5 / 체험 <일상을 배우는 취미공간>	28 	29

WED	THU	FRI	SAT
2 ● 9:20~12:00 / 1층 가락국실 / 2023년 여름 독서교실 ● 15:00~15:40 / 2층 지혜마루 / 여름방학특별공연: 어린이 뮤지컬 <신데렐라>	3 ● 9:20~12:00 / 1층 가락국실 / 2023년 여름 독서교실 ● 15:00~15:40 / 2층 지혜마루 / 여름방학특별공연: 마담+별문쇼 <음유시인> ● 14:00~15:30 / 책담 2층 책벗 / 체험 <녹색 더하기>	4 ● 9:20~12:00 / 1층 가락국실 / 2023년 여름 독서교실 ● 15:00~15:40 / 2층 지혜마루 / 여름방학특별공연 <클라운진의 별문여행> ● 14:00~15:30 / 책담 2층 책벗 / 체험 <녹색 더하기>	5 ● 16:00~17:00 / 북카페 / 탭댄스 <자신의 몸으로 음악을 만들기> ● 10:00~12:00 / 1층 유아실 / 책이랑놀이랑 <꿈오르골 만들기> ● 13:30 / 2층 구지봉실 / 지구를 살리는 도서관 <김지형 작가와의 만남> ● 10:00 / 지혜마루 / 인문학 바캉스 <예술로 떠나는 유럽 인문 여행> (매주 토요일) ● 15:00 / 별빛마루 / 동화랑 놀자(매주 토요일, 19일 제외) ● 15:00~15:40 / 1층 세상을 봄 / 과학 마술쇼 <뉴트의 초록우주를 찾아서> ● 14:00 / 해담 3층 해담홀 / 체험 <토요책동산(칼라클레이 아이스크림 만들기)>
9 ● 9:30~11:40 / 3층 더배움5 / 어린이 창의수학 여름독서교실	10 ● 10:30~12:30 / 꿈담 1층 꿈담홀 / 강연 <독서아카데미> (31일 까지, 매주 목요일) ● 14:00~15:30 / 책담 2층 책벗 / 체험 <녹색 더하기>	11 ● 14:00~15:30 / 책담 2층 책벗 / 체험 <녹색 더하기>	12 ● 16:00~17:00 / 북카페 / 인형극 <똥돼지 왕방구> ● 10:00 / 2층 구지봉실 / 지구를 살리는 도서관 <바다를 지켜줘> ● 11:30, 12:30 / 1층 유아자료실 / 책 읽어주세요 ● 14:00~14:40 / 3층 시청각실 / 샌드아트 <짧은 귀 토끼> ● 14:00 / 지혜마루 / 조선마술패 ● 14:00~16:00 / 3층 무학전당 / 경남(문학)을 만나다 강연 <지역과 기록의 역사> ● 15:00~15:40 / 1층 세상을 봄 / 환경 인형극 <안녕, 펭구> ● 15:00~15:40 / 2층 지혜마루 / 힐링공연 <국악살롱> ● 10:00~12:00 / 꿈담 4층 꿈1 / 체험 <원데이 클래스> ● 10:00 / 책담 1층 꿈뜨락 / 공연 <다문화 인형극> ● 16:00~18:00 / 꿈담 4층 꿈1 / 체험 <꿈을 꾸고 실천하는 미래유권자>
8.9.~8.18. (수, 금) 독딱뚱딱, 레이저커팅기B 10:00~12:20 / 만장대실 여름방학특강 <동화가 있는 요리> 10:00~11:30 / 수로왕실 여름방학특강 <그림책과 연극놀이터> 10:00~11:30 / 다목적실 여름방학특강 <두뇌ON 보드게임> 13:00~14:30 / 가락국실 여름방학특강 <북적북적 그림책 공작소> 14:00~15:30 / 세미나실 여름방학특강 <동화속 꼬마 정원사> 14:00~15:30 / 수로왕실 8.8.~8.22. (화, 목) 여름방학특강 <나는아 지구지킴이> 10:00~11:30 / 가락국실 8.10.~8.24. (화, 목) 여름방학특강 <떠나자! 한국지리여행> 10:00~11:30 / 수로왕실 동화와 함께하는 3D프린팅B 14:00~16:20 / 만장대실			
23 	24 ● 14:00~16:00 / 2층 구지봉실 / 김해신중년클래스 <평생월급 프로젝트>	25 ● 10:00~12:00 / 1층 더채움방 / 원데이 <유리전사 그릇 꾸미기>	26 ● 15:00~16:30 / 북카페 / 정글in 그림책작가 <신유미> 힐링 콘서트 ● 14:00 / 지혜마루 / 인문학 강연 <줄리장> ● 14:00~16:00 / 3층 무학전당 / 토요 인문 특강 <탁재형 작가 강연> ● 11:00~11:40 / 2층 지혜마루 / 어린이 뮤지컬 <기적이 사라진 후크선장> ● 13:00~15:00 / 1층 더채움방 / 자유학기제 <휴먼라이브러리 (유투버 크리에이터 쓰쭈남 특강)> ● 15:00~16:30 / 1층 구암홀 / 홍보특강 <인스타그램 퍼스널 브랜딩> ● 10:00~11:00 / 책담 1층 꿈뜨락 / 공연 <동화인형극(오즈와 갈갈마녀)> ● 10:00~12:00 / 꿈담 4층 꿈2 / 체험 <원데이 클래스> ● 10:00~13:00 / 꿈담 3층 꿈5 / 체험 <한지 꽃이 피었습니다> ● 16:00~18:00 / 꿈담 4층 꿈1 / 체험 <꿈을 꾸고 실천하는 미래유권자>
30 ● 15:00 / 책담 1층 해오름 / 영화 상영 <씨네 라이브러리(쌈)>	31	창원도서관 체험 프로그램 안내 VR 프로그램 8월 중 해당 날짜에 행사 2·3·5·9·10·16·17·19·23·24·30·31일 책담 2층 책고리 / 10:00(평일), 14:00(주말) 샌드 크래프트 8월 중 매주 주말 (토, 일) 책담 1층 누리홀 / 10:00, 16:00 토요 그림책 놀이 8월 중 매주 토요일 해담 1층 해2 / 13:00	

· 프로그램 일정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지면 관계상 일부만 소개하였습니다. 더 많은 정보는 각 기관의 누리집에서 확인하세요.

신나는 방학을 더욱 들뜨게 해줄 고성 여행

“야! 방학이다.”

공룡 세상으로 들어가는 것만큼 아이들에게
신나는 일이 있을까? 상상과 현실의 경계 속에서
엄연히 존재하는 공룡. 수억 년 전 이 땅에
살았다는 것만으로도 끊임없이 아이들의 흥미를 이끌어 내는
존재가 바로 공룡이다. 신나는 방학을 더욱 들뜨게 해줄
‘공룡의 땅’ 고성으로 떠났다.

- 01 상족암군립공원 바닷가 산책로에서 공룡발자국을 구경하는 사람들
- 02 2023년 경남고성공룡세계엑스포 현장 체험학습
- 03 고성공룡박물관 전경



남부 연안 중앙부 최남단에 있는 고성은
1982년 공룡 발자국이 발견된 후
공룡알 화석까지 나왔다.

공룡 발자국 5,000여 개가 여기저기 흩어져 있어 브라질, 캐나다 지역과 함께 세계 3대 공룡 발자국 화석 산지가 되었다. 특히 밥상 다리 모양과 닮아 상족(床足), 또는 여러 개의 다리 모양과 비슷하다 하여 쌍족(雙足)이라는 이름이 붙여진 상족암 군립공원(고성군 하이면 덕명5길 42-23)은 중생대 백악기 공룡 발자국이 선명하게 찍힌 곳이다. 해변가 바위 위에서 공룡 발자국 화석 2,000여 개가 관찰되는 화석 산지이기도 하다.

1억 5000만 년 전에 호숫가 늪지대였던 이곳은 공룡들이 집단으로 서식하여 발자국이 남았다가 그 위로 퇴적층이 쌓이면서 암석으로 굳어졌고, 그 뒤 지층이 솟아오르면서 퇴적층이 파도에 씻기자 공룡 발자국이 드러난 것으로 보인다. 이런 이야기들을 상상하며 걷다 보면 자연의 신비로움이 온몸을 감싼다. 그 신비로움과 함께 해안가를 따라 걷다 보면 병풍바위, 촛대바위 등 절경도 눈에 담긴다. 파도에 깎여서 생긴



미로 때문에 변화무쌍한 자연 동굴은 감상 후 사진 남기는 것을 잊지 말자.

아기자기한 공룡 조형물이 먼저 반기는 고성공룡박물관은 상상의 세계를 눈앞에 펼쳐놓은 곳이다.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로 1층에는 백악기 공룡, 디노랜드, 과거의 흔적 등을, 2층에는 공룡의 수도, 고성의 공룡 발자국 등을 전시해 놓았다. 야외에는 길이 34m, 너비 8.7m, 높이 24m의 브라키오사우루스를 형상화한 공룡 탑 외에 분수대·전망대·탐방로 등이 있어 아이들의 호기심을 채우기에 충분하다.

고성의 또 다른 매력은 이 여름, 체험 활동을 하기에 부족함이 없다는 것이다.

상족암 군립공원에서 자동차로 10여 분 거리에 있는 고성 동화어촌체험휴양마을(고성군 하일면 동화1길 203)은 지난 2005년 3월 체험마을 기반 조성을 마치고 매년 방문객들을 맞이하고 있다. 갯벌에 사는 생물들의 생태를 관찰하고 고둥을 줍고 바지락을 캐는 갯벌 체험이 대표적이다. 미리 동화



마을 누리집을 통해 물때 등을 검색해 전화나 문자 등을 통해 예약하면 된다. 긴 해안선을 따라 갯바위 낚시도 즐길 수 있고, 어선에 승선하여 마을 앞바다의 각종 어장을 둘러보는 선상체험도 할 수 있다. 자란만을 비롯한 사랑도 근해에서 잡은 싱싱한 생선회도 놓치면 섭섭하다.

마을 한가운데에는 임진왜란 때 충무공 이순신 장군의 보급기지 역할을 하였다는 '소울비포성지'가 있다. 왜구의 침입을 막고자 쌓은 성인데 과거의 치열함을 잊고 이제는 바닷가에 있는 옛 성터의 모습과 함께 마을 이름 그대로 '동화마을'의 편안함을 느낄 수 있다. 바닷가로 돌출된 낮은 산의 해안 경사를 따라 타원형으로 쌓아 올린 산성은 앞쪽이 바다를 향하고 있어 자연환경을 잘 활용한 방어 시설임을 알아챌 수 있다. 흙을 이용하지 않고 순수하게 돌로만 쌓고 작은 돌을 채워 넣었다. 무료 주차장을 지나 들어가는 입구에는 굵은 소나무들이 베어진 채 누워있는데, <세종실록>에는 최초로 군함 제작에 쓰일 소나무 재배지였다는 기록이 있다.

산책로가 잘 갖춰져 있어서 돌로 포장된 계단과 길을 따라 가볍게 언덕 위로 올라가면 금세 탁 트인 넓은 공터가 펼쳐진다. 여름에 찾는다면 초록빛의 잔디로 가득하고 성벽 너머로

맑고 고요한 바다가 펼쳐져 장관을 이룬다. 이곳에서 바다를 내려다보면 자연환경을 활용한 선조들의 지혜가 느껴진다. 아직 사람들에게 많이 알려지지 않아 조용히 사색하며 걷기 좋다. 일몰 명소로도 조금씩 알려지고 있는데 미세먼지가 없는 깨끗한 밤에는 쏟아지는 별을 관찰하기도 좋다.

가능할 수 없는 세월 속으로 들어가게 하는 고성.

자연의 위대함과 조상의 지혜를 깨달을 수 있는 곳. 펄떡이는 생명으로 가득찬 갯벌의 경이로움까지 느낄 수 있었던 여행이다. 파도 소리에 실려오는 아이들의 웃음소리를 듣고 있자니 아무런 근심 없이 이 바다를 오래오래 바라볼 수 있기를 소망해 본다.

경남교육가족의 휴식 공간, 경상남도교육청 종합복지관

고성공룡엑스포가 열리는 당항포 관광지와 멀지 않은 곳에 경남교육가족이 편하게 쉴 수 있는 경상남도교육청 종합복지관이 있다. 창 너머로 산과 바다가 보이는 객실에서 몸과 마음 모두 편안한 휴식을 누릴 수 있다. 이용 방법은 경상남도교육청 종합복지관 누리집에서 확인하면 된다.

고성공룡박물관

- 주소 고성군 하일면 자란만로 618
- 운영 하절기 9~18시, 매주 월요일 휴무
- 문의 055-670-4451

동화어촌체험휴양마을

- 주소 고성군 하일면 동화1길 203
- 문의 010-4022-2122

상족암군립공원

- 주소 고성군 하일면 덕명5길 42-23
- 문의 055-670-4461

경상남도교육청 종합복지관

- 주소 고성군 회화면 회진로 296
- 문의 055-674-2375



- 04 동화마을의 갯벌
- 05 촛대바위 전경
- 06 소울비포성
- 07 상족암군립공원 동굴
- 08 상족암군립공원에서 보이는 주상절리

같이 오르고 함께 기록하는 우리 가족 등산 일지

아빠 장이욱, 엄마 박성희

아들 장준영(창원 용호초 4학년)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거제 11대 명산 중의 하나인 북병산에 왔어요. 북병산은 북쪽으로 산이 병풍처럼 둘러쳐져 있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에요. 그리고 요즘 거제는 수국이 한창이에요. 한 번 가볼게요.”
대본도 없이 리포팅을 마친 뒤, 성큼성큼 산길을 걸어가는 주인공, 창원 용호초등학교 4학년 장준영 군이다. 준영이네 가족이 함께 산행을 시작한 지도 벌써 5년 차. 그사이 가족 산행을 기록한 140여 편의 영상은 ‘준영이네 가족 산행’이라는 이름으로 유튜브에 기록돼 있다.



촬영 엄마, 편집 아빠, 주인공 산과 장준영

준영이네 가족이 지금까지 함께 다녀온 등산은 200여 회. 언제 어느 산에 다녀왔는지는 유튜브에 생생하게 남아있다. 출발 전, 그리고 정상까지 오르는 틈틈이 해당 산에 갖든 이야기와 계절별 등산 정보를 전하는 것은 준영이의 몫, 준영이의 산행 모습과 풍경을 촬영하는 일은 엄마, 영상을 편집하는 일은 아빠가 맡고 있다. 영상을 올리기 전, 준영이의 감수는 필수다.

엄마 박성희 “준영이가 2학년 때 반 친구들 중에서 유튜브 하는 애들이 많다고, 어느 날 자기도 하고 싶다고 하는 거예요. ‘공부 유튜브를 해볼까?’ 했지만 당연히 거절당했죠(웃음). 지속적으로 촬영할 수 있는 것이 뭐가 있을까 했더니 등산이더라고요.”

아빠 장이욱 씨와 엄마 박성희 씨는 같은 병원에서 일하고 있다. 한 명이라도 주말 당직이 있거나 비 올 때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주말에 산으로 향한다. 가족 여가의 1순위가 등산인 셈이다. 유튜브를 하기 이전부터 가족은 산에 주기적으로 다니고 있었고, 그렇게 된 데는 엄마 박성희 씨의 영향이 컸다. ‘가족 중 누가 등산을 가장 좋아하느냐’는 질문에 아빠와 준영이의 손가락이 일제히 엄마를 향했다.

장준영 “엄마가 산을 100만km 좋아한다면 저랑 아빠는 80 정도 좋아해요.”

아빠 장이욱 “처음엔 가정의 평화를 위해 마지못해 따라가는 편이었죠. 아내를 만나기 전에는 집에서 게임하는 걸 좋아했고, 산에 가본 기억이 없을 정도였으니까요. 막상 등산을 가보니 힘든 만큼 멋진 풍경을 만날 수 있다는 게 좋고, 몸도 마음도 건강해지는 기분이 들더라고요.”



01

‘100대 명산’을

모두 오르는 그날까지

준영이가 일곱 살이 되었을 때, 네다섯 시간 걸리는 산행도 거뜰히 해내기 시작하며 본격적으로 가족 등산이 시작됐다. 세 사람이 모여 앉아 ‘이번 주말에는 어느 산을 가볼까?’ 고르는 것은 가족의 큰 즐거움이다. 산을 고르는 기준은 날씨, 집에서의 거리, 준영이가 얼마나 흥미를 갖는 산인가 등. 비슷한 조건이라면 산림청에서 지정한 ‘100대 명산’ 위주로 고른다.

장준영 “집에 ‘100대 명산’ 스티커 판이 있는데 하나씩 하나씩 붙여 가는 게 재미있어요. 아직 많이 비어있으니까 가 볼 산도 많은 거겠지요?”

엄마 박성희 “역사적으로도 의미가 있는 구미 금오산이나 유적이 많은 경주 남산 등에 갈 때는 준영이한테 들려줄 이야기도 많으니까 공부를 많이 하고 가요. 코스는 국립공원 내의 산은 보호구역 따라 코스가 딱딱 정해져 있어 오히려 공부할 것이 별로 없고요. 작은 산이 들머리부터 정상까지 여러 갈래 길이 나 있어서 동선을 공부하고 가야 하는 경우가 많아요.”

자연이 좋아

가족이 좋아

준영이네 가족은 사실 창원과 전혀 연고가 없는 사람들이었다. 결혼 후 ‘자연과 가까운 곳에서 아이를 키우고 싶다’는 생각에 제주도로 이주도 잠시 계획했지만, 여러 상황을 고려한 끝에 경남 거제를 거쳐 지금의 창원에 정착하게 됐다.

아빠 장이욱 “사실 준영이가 일곱 살이 되면 다시 서울로 돌아가려 했는데 경남의 정주 환경이 너무 마음에 들어 더 있기로 했어요. 교육적으로나 문화적으로 부족하다는 점도 없고요. 경기, 강원권 산이 멀리 있다는 게 단점이라면 단점일까요?”

준영이네 가족의 차에는 언제나 등산 스틱과 등산화가 실려 있다. 익숙한 손놀림으로 토시를 챙겨 끼는 준영이를 보며 성희 씨가 “이제 어린이용 토시는 작고, 어른 것은 커요”라고 말했다. 산과 함께 성장해가고 있는 세 가족에게, 등산이 준 것은 무엇인지 물었다.

- 01 취재일, 준영이네 가족은 가볍게 정병산에 올랐다.
- 02 강진 덕룡산에서 촬영 중인 준영이
- 03 신혼 시절 ‘나중에 아이가 생기면 같이 오고 싶다’ 생각했던 울릉도 성인봉. 그 꿈이 이루어졌다
- 04 준영이가 꼽는 ‘인생샷’. 충북 단양 월악산 제비봉에서

02



03



아빠 장이욱 “차를 타고 이동하면서, 또 등산하면서 대화를 끊임없이 한다는 점이에요. 평소에 섭섭했던 것부터 좋은 점까지 터놓고 이야기하는 시간이 많으니 자연스레 화목해지고요. 준영이가 어릴 때부터 눈이 나빠서 걱정이었는데 숲의 푸른색을 많이 봐서인지 시력이 덜 나빠지는 것도 산이 준 선물 같아요.”

엄마 박성희 “집에서는 각자 방에서 책 보고, 게임하고, 서로 떨어져 있잖아요. 등산을 가면 가족이 온전하게 같이 시간을 보낼 수 있다는 점이 가장 좋고, 성취감과 건강도 얻을 수 있죠. 가족 등산 덕분에 TV에도 출연해보고, 특별한 경험은 덤이네요.”

장준영 “저는 등산 가면 모르는 사람들과도 인사를 나눌 수 있고, 가족 간 친목 도모도 할 수 있어서 좋아요. 꿈이 유튜버였는데 등산 유튜브를 시작했으니까 이미 꿈을 이뤘고요.”

04



여러분도

같이 등산 가실래요?

초록으로 물든 풍경, 나무 그늘 아래를 걸으며 마시는 청량한 공기, 정상에 오르면 시원하게 땀을 말려주는 바람까지. 어떨까, 이 정도면 여러분도 산에 오르고 싶지 않은지. “힘든 등산일수록 기억에 오래 남아요”라고 말하던 준영이가 반갑게도 오르기 쉬우면서도 전망까지 좋은 산을 추천해 준다.

“진해 천자봉에 가면 들머리에서 임도 2km 걷고 텃마루 산책길(텍로드) 400m만 오르면 정상이 있어요. 정상에 둘 두 개가 있는데 그 둘을 기어 올라가면 진해 앞바다가 엄청 멋있게 보이고 거제까지 다 보이거든요. 저희는 보지 못했는데 날씨가 좋은 날에는 지리산이랑 대마도(쓰시마섬)도 보인대요. 여러분도 꼭 가보세요.”

토박이말바라기와 함께하는 토박이말 나들이

배움책(교과서)에서 캐낸 토박이말
마흔 번째

언니 쓰임 맞말

1학년 국어 배움책(교과서) 여덟째 배움 마당은 ‘소리 내어 또박 또박 읽어요’입니다. ‘문장 부호를 생각하며 글을 띄어 읽기’가 버림소(주제)이고 210쪽부터 215쪽에 걸쳐 ‘문장 부호 알기’라는 알맹이를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은 213쪽 첫째 줄에 나오는 ‘호랑이 형님’과 아랑곳한 이야기부터 해 드리겠습니다.



앞서 ‘호랑이’가 ‘범 호(虎)’, ‘이리 랑(狼)’에 이름씨를 만드는 뒷가지(명사화 접미사) ‘이’를 더한 말이며 한자를 풀면 범과 이리를 싸잡아 이르는 말이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예부터 써 오던 토박이말 ‘범’을 살려 쓰자는 이야기도 같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나온 ‘형님’이라는 말도 따져 볼 말입니다. 말집(사전)에서 ‘형님’을 찾으면 ‘형의 높임말’이라고 풀이하고 있습니다. 한자까지 풀어 보면 ‘맏 형(兄)’에 사람을 높여 이르는 말인 ‘님’을 더한 말입니다. 그리고 ‘맏’을 말집(사전)에서 찾으면 “‘맏이’의 뜻을 더하는 접두사”라고 풀이를 하고 있고 ‘맏이’는 ‘여러 형제자매 가운데서 제일 순위인 사람’, ‘나이가 남보다 많음. 또는 그런 사람’의 두 가지 뜻이 있다고 풀이를 하고 있습니다.

표준국어대사전

언니

- 같은 부모에게서 태어난 사이이거나 일가친척 가운데
형렬이 같은 동성의 순위 형제를 이르거나 부르는 말.
주로 여자 형제 사이에 많이 쓴다.

쓰임

돈이나 물건 따위가 실제로 사용되는 곳. 또는 그 용도

이와 비슷한 뜻을 가진 말로 ‘언니’라는 토박이말이 있는데 말집에서 찾으면 ‘같은 부모에게서 태어난 사이이거나 일가친척 가운데 형렬이 같은 동성의 순위 형제를 이르거나 부르는 말. 주로 여자 형제 사이에 많이 쓴다’라고 풀이를 하고 있습니다. 풀이처럼 옛날에는 남자 여자를 가리지 않고 썼다는 것이고 요즘에 와서 여자들만 쓰게 되었다는 것은 졸업식 노래의 “빛나는 졸업장을 타신 언니께~”라는 노랫말을 봐도 잘 알 수 있습니다.

첫째 줄에 함께 나오는 ‘쓰임’이라는 말은 1학년 아이들 눈높이에 맞게 쓴 좋은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쓰임’은 ‘쓰다’의 입음꼴(피동형) ‘쓰이다’의 이름씨꼴(명사형)로 말집(사전)에는 ‘돈이나 물건 따위가 실제로 사용되는 곳. 또는 그 용도’라고 풀이를 하고 있습니다. 풀이에 나오는 것처럼 다른 곳에서는 ‘용도(用途)’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비해 배움 아이들이 쓰는 배움책(교과서)인 만큼 ‘용도(用途)’보다는 ‘쓰임’이 더 쉬운 말이라고 생각했을 거라고 믿습니다.

둘째 줄에 ‘섬표’를 풀이하는 말 가운데 ‘대답하는’이라는 말이 있는데 이 말도 생각해 볼 말입니다. 앞에 ‘부르는 말’이 나오는 것을 봐도 그렇고 나날살이에서도 ‘묻다’와 짝이 되는 말은 ‘대답하다’ 또는 ‘답하다’를 많이 씁니다. ‘부르다’도 토박이말이고 ‘묻다’도 토박이말인데 그와 짝을 이루는 말인 ‘대답하다’와 ‘답하다’의 ‘대답(對答)’과 ‘답(答)’은 모두 한자말입니다. 한자 풀이를 봐도 ‘대답’은 ‘대답할 대(對)’에 ‘대답할 답(答)’이라고 해 놓아서 맞는 토박이말이 없다는 것을 미루어 알 수 있습니다. 이럴 때 쓸 수 있는 토박이말은 무엇일까요? 없다면 어떻게 다듬으면 좋을까를 놓고 슬기를 모았으면 합니다.

표준국어대사전

대답-하다

- 부르는 말에 응하여 어떤 말을 하다. ㄴ 答하다.

‘대답하다’를 말집에서 ‘부르는 말에 응하여 어떤 말을 하다’라고 풀이를 하고 있는데 좀 더 줄이면 ‘응해 하는 말’이 됩니다. 따라서 저는 ‘부르는 말에 맞추어 하는 말’이라는 뜻을 담아 ‘맞말’이라고 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이 짜임에 따라 다른 사람의 글을 보고 쓰는 글이나 다른 사람이 보낸 글에 맞추어 쓴 글은 ‘맞글’이라고 할 만하다는 생각입니다. 아이들의 자리에서 더 알기 쉬운 말을 찾아 배움책에 쓸 수 있도록 함께 힘과 슬기를 모았으면 하는 바람을 전합니다.



다가오는 2 학기를 준비하며

‘여름방학’ 알차게 보내기

여름방학은 2학기를 시작하기 전, 스스로를 되돌아보고 다시 힘찬 출발을 하기 위한 준비 기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나의 진로와 적성에 대한 고민 해결과 부족한 부분 보강을 위해 이 시간을 잘 보내야 할 텐데요. 학생 여러분 모두 다음 두 가지 부분을 유념하면서 알찬 여름방학 시간을 보내기 바랍니다.

부족한 교과 중심으로 복습하기

당연한 이야기이지만 1학기 때 부족했던 교과 중심으로 하는 복습을 통해 교과 내용을 완전히 마무리하고 2학기를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복습 후에는 예습이 필요한데, 또 지나친 선행학습은 새로운 교과 내용에 대한 흥미를 저하시킬 수 있기 때문에 많은 학습량의 예습은 지양하는 것이 좋습니다. 공부는 외부의 도움보다는 스스로 의문을 찾고 해결하는 습관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최근 대학 입시에서는 수업을 포함한 학교 활동에서 자기주도적 문제 해결 역량을 갖추고 있는 학생을 우선적으로 선발하려는 경향이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궁금증을 바탕으로 그것을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적극적으로 하는 학습방법을 익히는 게 좋겠습니다.

다양한 종류의 책을 읽고 독서를 습관화하기

다음은 독서입니다. 독서의 중요성은 계속 강조되어 온 부분이지만 미래 인재는 독서가 바탕이 된 사람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학기 중에 교과 공부를 하느라 자칫 독서에 소홀한 학생들이 있다면 이번 여름방학을 활용하여 다양한 종류의 책을 읽는 것이 좋겠습니다.

올해부터 대입에서 학교생활기록부의 독서활동상황이 미반영되지만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자율활동, 동아리활동, 진로활동에 기록되는 것을 권장하기 때문에 독서의 습관화는 매우 중요합니다. 아래 서울대학교에서 발표한 지원자들이 가장 많이 읽는 책과 단과대학별 지원자들이 가장 많이 읽는 도서를 소개합니다.

2022학년도 지원자들이 가장 많이 읽은 도서 20권

순위	제목	저자
1	침묵의 봄	레이첼 카슨
2	멋진 신세계	올더스 헉슬리
3	왜 세계의 절반은 굶주리는가	장 지글러
4	팩트폴니스	한스 로슬링
5	공정하다는 착각	마이클 샌델
6	이기적 유전자	리처드 도킨스
7	데미안	헤르만 헤세
8	아픔이 길이 되려면	김승섭
9	미움받을 용기	기시미 이치로
10	사피엔스	유발 하라리

순위	제목	저자
11	엔트로피	제레미 리프킨
12	부분과 전체	베르너 하이젠베르크
13	정의란 무엇인가	마이클 샌델
14	1984	조지 오웰
15	페스트	알베르 카뮈
16	죽은시간의 사회	N.H.클라인바움
17	총·군·쇠	제레드 다이아몬드
18	선량한 차별주의자	김지혜
19	숨결이 바람될 때	폴 칼라니티
20	넛지	리처드 탈러

2022학년도 단과대학별 지원자들이 가장 많이 읽은 도서 3권

단과대학	1위	2위	3위
인문대학	데미안	선량한 차별주의자	1984
자연과학대학	침묵의 봄	부분과 전체	페르마의 마지막 정리
간호대학	아픔이 길이 되려면	페스트	아내를 모자로 착각한 남자
경영대학	넛지	파타고니아, 파도가 칠 때는 서핑을	팩트폴니스
공과대학	엔트로피	부분과 전체	공학이란 무엇인가/침묵의 봄
농업생명과학대학	침묵의 봄	왜 세계의 절반은 굶주리는가	멋진 신세계/이기적 유전자
미술대학	변신	디자인 인문학	인간을 위한 디자인
사범대학	죽은시인의 사회	평균의 종말	수레바퀴 아래서
생활과학대학	이상한 정상 가족	넛지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
수의과대학	의사와 수의사가 만나다	인수공통 모든 전염병의 열쇠	동물해방
약학대학	새로운 약은 어떻게 창조되나	신약의 탄생	위대하고 위험한 약 이야기
음악대학	하노버에서 온 음악편지	젊은 음악가를 위한 슈만의 조언	미움받을 용기
의과대학	숨결이 바람될 때	아내를 모자로 착각한 남자	아픔이 길이 되려면
자유전공학부	팩트폴니스	데미안	1984
치의학대학원	입속에서 시작하는 미생물 이야기	치과의사가 말하는 치과의사	아픔이 길이 되려면/ 치과의사는 입만 진료하지 않는다

숫자로 보는 경남교육



초등생존수영교육 대상 확대

6학년
까지



의령 공립초등학교



남해 미조초등학교

물놀이의 계절 여름, 재미있게 노는 것도 좋지만 안전하게 노는 것이 더 중요하겠죠? 아이들의 안전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경상남도교육청은 초등생존수영교육 대상 학년을 1~6학년으로 확대했습니다. 3·4학년 대상으로 필수 운영을 하고 교육지원청별 여건 등을 고려하여 가능한 지역부터 전 학년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생존수영교육은 자기 생명 보호 능력과 물에 대한 적응력을 높이는 동시에 학생 건강과 기초체력을 향상해 평생체육 활동으로 이어갈 수 있습니다. 또한 수영 기능 체득을 통해 자기 생명을 스스로 보호할 수 있는 힘이 생길 수 있습니다.

수영장 안전 지도

수영장에서 교육을 받을 때 주의할 점 13가지가 있는데요. 먼저 수영장 내에서 조심해야 할 행위입니다. ❶ 수영장에서 뛰는 행위(수영장에서는 뒤꿈치 대고 천천히 걷기), ❷ 깊은 물에 들어가거나 장난치며 물속으로 밀치는 행위, ❸ 다이빙을 하거나 혼자서 물에 뛰어드는 행위, ❹ 수영 전 준비운동을 하지 않고 물에 들어가는 행위, ❺ 허락 없이 친구 신체를 접촉하는 행위, ❻ 수영장에서 다른 사람에게 성적 굴욕감(성적 혐오감)을 주는 행위, ❼ 친구의 외모에 대한 성적 비유나 모욕적인 말을 하는 행위, ❽ 수영장에서 큰소리로 이야기하는 행위 등이 해당됩니다. 다음으로 지도 시 유의사항입니다. ❶ 수영 전·후 인원 확인과 함께 건강상태 체크, ❷ 인원 파악에 이상한 점이 있을 시 즉시 확인, ❸ 수업 중 모든 어린이를 계속해서 관찰하며 수시 인원 점검, ❹ 물놀이 전·후에는 반드시 5분 이상 준비운동 실시, ❺ 입욕하기 전 비누 샤워를 통해 아동들이 청결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확인 등이 있습니다. 모두 함께 지키며 안전을 위해 노력합시다.

초등생존수영교육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경상남도교육청은 생존수영의 핵심 기능인 생존기능 중심의 이론·실기 교육을 통하여 학생의 자기 구조 및 자기 보호 역량 강화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가능한 지역은 전 학년 대상으로 생존수영 4시간 이상을 포함해서 초등생존수영교육을 10시간 이상 편성·운영합니다. 기능교육과 놀이학습을 조화 있게 활용하여 학생의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운영되며, 학교 내 교육 시 실내체험교육(부력체험 등), VR간접체험, 수영실기교육 등 이론교육과 실기교육을 생존기능 중심으로 운영합니다. 또한 학교별 교육과정(체육교과, 창의적 체험활동 등)과 연계하여 지도합니다.

체육교과와 연계하여 10차시 이상 병행 운영합니다.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상황 및 지역 여건을 고려한 후, 체육교과와 연계(도전활동, 안전활동 영역, 창의적 체험활동)하여 총 10차시 이상 지역별, 학교별 상황에 맞게 구성 및 운영합니다. 여름철 물놀이 안전사고에 대비하는 여러 가지 상황별 생존수영법 교육이 있습니다. 먼저 수영장 실기교육, 이론교육, 수영장 외 실내체험교육 등을 병행 운영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생존기능) 자신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기능, (수영기능) 수영능력을 향상하기 위한 기능, (구조기능) 수상활동 시 타인을 돕기 위한 기능 등을 배우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실내체험교육을 통해 교실 등 수영장 외 공간에서 부력과 체온 유지를 체험할 수 있는 공간과 설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수상 안전에 대한 사전 교육을 통해 생존교육으로서의 수영의 중요성을 인식하게 됩니다. 인술(담임) 교사와 수영장 진행요원 및 안전요원의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차량 이동 및 수영장 내에서의 안전지도 및 안전사고 대비를 철저하게 합니다. 또한 이동식 수영장을 활용해서 학교 내에서 교육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양산 동산초등학교



남해 상주초등학교

경남교육 NEWS



저경력 급식종사자도 폐암 검진 지원

경력·나이 제한 없애... ‘폐암 의심’ 소견자에게 추가검진비 지원

경상남도교육청은 경력이 짧은 급식종사자에 대해서도 폐암 검진을 지원한다. 이번 검진은 지난해 경남교육청에서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에 안건으로 제안한 급식종사자 폐암 예방 대책의 하나이며 저(低)경력 급식종사자의 건강을 보호하고자 진행된다. 대상은 지난해 폐암 검진을 받지 못한 공·사립 학교(기관) 영양교사, 영양사, 조리사, 조리실무사 2,500여 명이다. 지난해와 달리 경력·나이의 제한을 없애고 올해 신규 채용자까지 포함한다. 검진은 7월 17일부터 9월 16일까지이다. 경남교육청은 지난해 폐암 검진 대상을 고용노동부 기준 인 경력 10년 이상 또는 55세 이상보다 확대하여 경력 8년 이상 또는 55세 이상인 급식종사자에 대하여 검진을 지원했다. 폐암 검진은 도내 국가 폐암 지정 병원 22곳에서 저선량 흉부 폐 시티(CT)로 진행되며 ‘폐암 의심’ 소견이 나오면 60만 원 한도의 추가검진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경남교육청은 “이번 폐암 검진 지원으로 후속 조치를 마련하여 급식종사자들이 더욱 안전한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기초학력 지원 확대로 학교 책임교육 강화

전체 초·중·고 기초학력 통합 진단, 학생 개별 맞춤형 지원

경상남도교육청은 상반기에 기초학력 지원을 대폭 확대하여 학교의 책임교육을 강화했다. 올해 모든 초·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기초학력 통합 진단, 기초학력 3단계 안전망을 통하여 학생을 맞춤형으로 지원한다. 학교 안 교실에서 두 교사가 학생을 가르치는 ‘1수업 2교사제’를 운영하여 기초학력 전담 강사 427명을 배치했고 학교 밖 학습종합클리닉센터에서 초·중학생 1,220명을 지원한다. 초·중학교 내 협력 수업을 운영하는 기초학력 전담 강사를 2022년 181명에서 2023년 427명으로 늘렸다. 또한, 초등학교에 기초학력 전담 교사 25명을 배치하여 초기 문해력과 수리력을 배우는 데 도움이 필요한 학생에게 소규모 개별 수업을 운영한다. 이외에도 초·록우산 어린이재단과 연계하여 아동양육시설 학생 33명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프로그램을 별도 운영하며, 학습종합클리닉센터에서는 학기 중간에 도움이 필요한 학생들까지 수시로 지원한다.

경남교육 NEWS



밀양시, 경남진로교육원 첫 삽 뜨다... 2025년 개원 목표

국내 최초 빅데이터·인공지능 기반 진로체험 교육기관 건립

경상남도교육청은 19일 밀양시에서 학생 맞춤형 진로교육 기관으로 운영될 경남진로교육원 착공식을 열었다. 경남진로교육원은 경남의 부족한 진로체험 인프라를 확충해 미래 역량을 갖춘 인재를 양성하고 다양한 진로 탐색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건립된다. 2024년 12월 준공 후 시범운영 과정을 거쳐 2025년 3월에 정식 개원할 예정이다. 교육관 1층 공간은 도서관, 카페, 자유관으로 상시 개방해 복합문화공간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조성되고, 2·3층은 특색관 및 역량관으로 미래사회 변화에 대응하고 수준별 체험프로그램이 진행되는 공간으로 구성된다. 특히 진로체험 공간은 미래산업, 생태환경, 건강안전, 창업창직, 진로상담, 문화예술, 인공지능의 7개 체험관 내에 20개 체험실을 갖추고 65개 직업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단순한 직업체험 중심의 진로교육에서 벗어나 체계적인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학생 개개인 맞춤형 진로교육서비스를 지원한다.



경상남도 직업계고 6개교 교육부 학과 재구조화 선정

창원기계공고, 경남자동차고 등 ... 21억 5천만 원 예산 지원 확정

교육부의 ‘2023년 직업계고 학과 재구조화 지원 사업’에 6개 직업계고, 7개 학과가 선정되었다. 직업계고 재구조화 사업은 교육부 주관으로 신기술·신산업분야 기술인재 양성을 위해 2016년부터 운영해 오고 있는 사업이다. 경남 직업계고 재구조화 사업의 내용을 보면 △창원기계공고 반도체전자과 2학급(기존 컴퓨터전자과) △경남산업고 스마트팩토리과 1학급(기존 산업설비과) △경남자동차고 AI로봇과 1학급(기존 자동차과) △경진고 도심항공모빌리티과 1학급(기존 기계과) 및 디지털영상콘텐츠과 1학급(기존 컴퓨터전자과) △김해한일여고 보건의료행정과 1학급(기존 금융정보과)으로 각각 개편한다. 한편, 경남자영고는 자영과 4학급에서 2024학년부터 5학급으로 1학급을 증설 운영한다. 올해 3월 수요조사, 4월에 사업 참여 희망학교 컨설팅과 6월에 교과군별 산업계 및 교육계 전문가의 심의를 거쳐 6개교 7개 학과가 선정되었다. 2024년에 총 21억5천만 원의 예산을 교육부로부터 지원받아 기자재 확충 및 교육과정 고도화를 추진해 공교육의 직업교육분야 경쟁력을 강화하게 된다.

교육위원에게 듣는다

정재욱

경상남도의회 교육위원회 위원
(국민의힘·진주1)



Q — 정재욱 의원님, 안녕하세요. 먼저 아이좋아 경남교육 매거진 독자들에게 인사 부탁드립니다.

A — 안녕하세요? 경남의 문화예술교육을 선도하는 도시, 진주 출신 정재욱 의원입니다. 저는 지난 2018년 제8대 진주시 의원에 처음 당선되어 의정활동을 시작한 후 2022년 제12대 경남도의회에 입성한 청년 도의원입니다. 현재 우리 도의회 내 연 구단체인 청년정책연구회 회장을 맡으면서 우리 경남 청년들

을 위한 실질적 정책 발굴에 노력하고 있으며, 진주와 서부 경남을 대표하는 교육위원으로서 다양한 경남의 교육 현안 해결을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청년 도의원의 열정과 패기로 희망찬 경남교육의 내일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Q — 교육위원으로서 어느 때보다 경남 교육에 많은 관심을 쏟고 계실 텐데요. 평소 의원님의 교육 철학은 무엇인지, 의원님께서 바라는 경남교육의 모습은 어떤 것인지 궁금합니다.

A — 교육의 원래 뜻이 맹자의 군자삼락에서 유래한 바와 같이 천하의 영재를 얻어 가르치고(敎) 기르는 것(育) 아니겠습니까? 가르친다는 것은 지식의 함양을, 기른다는 것은 인성의 교화를 각각 뜻하는 것으로 지성과 인성이 겸비된 사람을 길러내는 것이 바로 교육의 본질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급격하게 변화되는 사회를 따라가기 위해 다양한 교육정책적 노력도 중요하겠지만, 교육의 본질과 관계되는 교권 확립 문제나 학생 인성교육 등에도 우리 교육청이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정책을 수립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Q — 의원님의 지역구인 진주에서 가장 먼저 해결하고 싶은 과제는 무엇인가요? 이와 관련해 새롭게 필요하거나 보완해야 할 정책이 있다면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A — 잘 아시다시피 진주는 도시와 농촌이 혼재된 도농 통합 지역으로 외곽 읍면지역과 구도심 지역에는 학생들의 과소 문제가, 또한 혁신도시를 비롯한 평거·초장·신진주 역세권 등의 지역에서는 부족한 교육시설로 과밀학급이 문제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작은 학교 살리기와 함께 과밀학급 해소를 위한 학교 신설 문제를 동시에 해결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지만 보호자님을 비롯한 지역사회와 교육청 등의 여러 교육공동체 구성원들이 합심해서 노력한다면 반드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저 역시 교육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그 역할을 충실히 해 나갈 것을 다시금 약속드리면서 인사를 갈음코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경상남도의회 소식

경상남도의회 제406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 경상남도교육청 동물학대 예방교육
조례안 등 120개 안건 심의



경상남도의회 제406회 임시회가 7월 11일(화)부터 7월 18일(화)까지 8일간 일정으로 진행되었다. 제1차 본회의(11일)에서는 조영명 의원 등 6명 의원의 5분 자유발언과 교육청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등 6개 안건을 처리하였고, 제2차 본회의(7월 18일)에서는 신종철 의원 등 4명 의원의 5분 자유발언과 경상남도교육청 동물학대 예방교육 조례안 및 2023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 등 120개 안건을 처리하는 것으로 일정을 마무리 하였다.

경상남도의회 제406회 임시회

1차 교육위원회 개최, 현지의정활동 실시



경상남도의회 교육위원회는 제406회 임시회 기간 중 제1차 교육위원회를 13일 개최하였다. 경상남도교육청 동물학대 예방교육 조례안 및 2023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 등 5개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실시하였고, 산회 후에는 경상남도교육청 직속기관인 덕유학생교육원 및 종합복지관과 소가야중학교 3개 교육기관에 대한 현지 의정활동을 실시하였다. 박병영 위원장은 교직원들에게 “부모들이 안심하고 학생들을 학교에 맡길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학생들을 지도해 달라”고 당부했다.

**우리 아이
밤에 아파도 안심!**

- 달빛어린이병원 -

“으아아아앙!”

밤 9시가 넘어가는 시간, 18개월 수연(가명)이가 통영 SCH서울아동병원에 들어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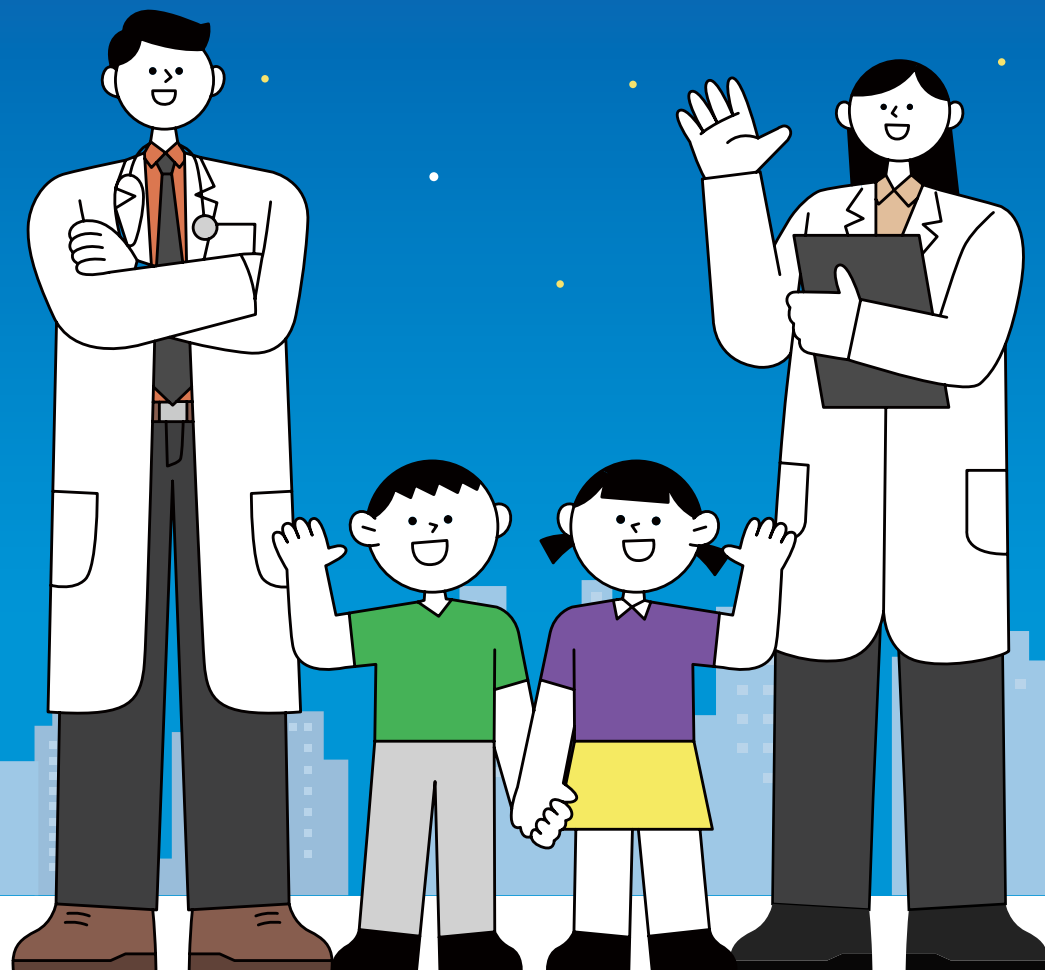
걱정스러운 기색이 역력한 수연이 엄마를 안심시키는 건 뒤따라 들어온 준호 엄마.

“여긴 통영에서 유일하게 야간진료 보는 어린이병원이야. 이제 괜찮아.”

수연이 엄마는 통영에 사는 친구네 집에 놀러 왔다가

갑자기 아이가 열이 올라 당황했지만 친구의 말을 듣고 급히 이곳을 찾았다.

늦은 밤이었지만 병원은 달처럼 환하게 어린 환자를 맞이하고 있었다.



**의료 사각지대 비추는
공공 심야 어린이병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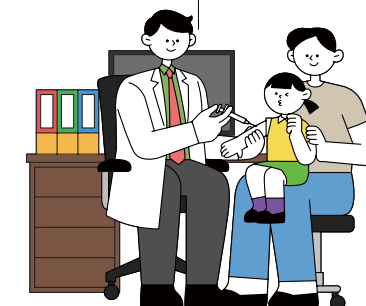
낮에 잘 놀던 아이가 밤에 갑자기 열이 올라 당황한 경험, 어린 자녀를 둔 부모라면 한 번쯤 겪는다. 아이는 우는데 가까운 병원은 진료가 끝났고 대형병원 응급실을 가자니 거리와 비용이 골치다.

‘달빛어린이병원’은 만 18세 이하 경증 소아 환자가 신속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심야나 휴일에도 운영하는 공공 심야 어린이병원이다. 의료 사각지대, 특히 한시가 급한 소아 환자들에게 딱 필요한 의료 시설이니 새로운 달빛어린이병원이 지정됐다는 뉴스는 지역 육아정보카페나 블로그에서 반가운 소식이다.

**응급실 진료비보다
저렴해**

달빛어린이병원의 운영시간은 정규 진료시간이 끝난 오후 6시부터 밤 11~12시, 휴일은 오전 9~10시부터 오후 6~10시까지이다. 응급실을 방문하지 않아도 되는 정도의 경증 소아환자를 분산 치료할 수 있고, 응급실 이용에 따른 의료비용 부담을 줄이는 효과도 있다. 응급실 진료를 보게 되면 진료비 이외에 응급의료 관리료라는 추가 비용이 진료비에 가산된다. 같은 진료를 보더라도 경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응급의료 관리료를 전액 환자가 부담하게 되는 것이다.

반면에 달빛어린이병원의 경우에는 응급실이 아니기에 응급의료 관리료가 들지 않는다. 그래서 평소 소아과 진료에 비해서 야간 진료비만 더 부담하는 정도이다.



경남 창원, 통영, 김해, 거제
4개 시 6곳 운영

달빛어린이병원 지정은 참여 희망 의료기관이 시·군·구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면 시·군·구에서 적합성을 심사해 최종적으로 지정한다. 지정된 병원은 2년마다 재지정 절차를 거친다.

경남도는 도민의 건강한 삶과 돌봄을 책임지기 위해 달빛어린이병원을 확대·운영하고 있다. 전국 45곳 가운데 경남은 창원, 통영, 김해, 거제 4개 시 6개 병원이 아이들 심야 진료를 맡고 있다. 경남에

는 0~19세 아동 약 53만 8000명이 거주
하고 있으며 아동 인구가 전국에서 가
장 많은 경기도가 약 234만 명에 16
개소를 운영하고 있다. 경남 아동
인구 10만 명 당 1.1개소, 경기도는
10만 명 당 0.68개소를 이용할 수 있
는 셈이다.

병원	비용
달빛어린이병원	진료비 + 야간진료비
일반 병원 응급실	진료비 + 접수비 + 응급의료관리료 + 야간진료비
대학병원 응급실	진료비 +접수비 + 응급의료 관리료 + 상급병원 진료비 + 야간진료비

독자기고

송지윤 | 실천교사단, 기후천사단운영

부쩍 학교에서 환경 교육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많이 듣게 되면서,
‘환경 교육이 아이들에게 도대체 왜 필요하지?’, ‘무엇부터 교육해야 할까?’의 고민에서부터였다.

우리 학교에는 환경에 관심이 많은 부장님이 계셨다.

환경을 위해 직접 몸소 나서서 실천하시는 분은 처음 뵈었다.

대단하고 멋지단 생각은 들면서 나는 못 할 거란 생각이 가장 먼저 들었다.

무엇보다 환경은 내게 큰 관심사는 아니었다.

시작이 반이라고 일단 환경동아리를 만들었다.

1년 동안 환경을 위한 활동을 생활 속에서 함께 실천해보고자 ‘하루 환경’이라는
환경동아리를 운영하기 시작했다. ‘하루 환경’이라는 이름은 아이들과 함께 정했다.

단순하게 하루 적어도 한 번, 환경을 위해 사소한 행동에서부터 실천하자는 뜻으로 정했다.

가장 기억에 남는 활동으로는 ‘무동플로깅’이었다. 동네 한 바퀴를 돌며 동네의 쓰레기를 줍는.

살랑살랑 부는 바람과 따뜻한 햇볕을 느끼며 수많은 쓰레기를 줍는 일이 즐겁게만 느껴졌다.

아이들 표정만 보더라도 환경을 위해 뭐라도 했다는 양 자신감 넘치는 모습이 너무 사랑스러웠다.

어렵게만 느껴졌던 환경 교육이 환경의 날 덕분에 쉽게 느껴졌다.

다만 귀찮고 힘들다는 이유만으로 환경을 위해 실천해야 하는 일들을 내일로 미루고

날들이 늘었다. 가까운 거리는 걸어가기, 일회용품 대신 텀블러, 에코백, 장바구니 사용하기,

양치할 때 양치 컵 사용하기 등 일상에서 쉽게 할 수 있는 일들부터 습관으로 만들고자 노력했다.

환경동아리가 끝나고 종업하는 날, 동아리로 인해 변화했던 일상들에 관해 이야기를 나눴다.

학급에서 하는 환경동아리는 끝났지만 스스로 환경을 지키기 위해 할 수 있는 일들을

하겠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절로 웃음이 났다.

올해는 저학년을 데리고 환경동아리를 운영한다.

매년 만나는 아이들에게 환경을 다시 생각하게 하고

환경에 도움이 되는 행동을 스스로 해볼 기회를 줄 수 있어 행복하다.

역시 시작이 반이었다. 어쩌면 나보다 더 적극적인 아이들 덕분에

스스로를 다져가며 아이들과 활동할 수 있었던 것 같다.

교사의 작은 관심은 아이들에게 큰 변화를 가져온다는

사실을 늘 생각해야겠다.

2023년 8월 호

독자퀴즈

아이좋아 경남교육 8월 호를 집중해서 읽은 독자들만 맞힐 수 있는 문제입니다. 잘 읽고 정답을 맞춰보세요.

1 ____ 양산 신양초등학교 김건우 선수가 2023전국소년체전에서
금상을 수상한 종목은 무엇일까요?(객관식)

① 사이클 ② 수영 ③ 씨름 ④ 축구

2 ____ 이 지역은 브라질, 캐나다 지역과 함께 세계 3대 공룡 발자국 화
석 산지입니다. 공룡 발자국 5,000여 개가 여기저기 흩어져 있
어 일명 공룡의 도시라고 불리는 이곳은 어디일까요?(객관식)

① 창원 ② 밀양 ③ 고성 ④ 거제

3 ____ 김해생명과학고등학교처럼 특정 분야 인재와 전문 직업인 양성
을 위한 특성화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학교를 무엇이라 부를까요?
(주관식)

4 ____ 경남교육청이 유치원 교육의 공공성을 확보하고 공립 유치원
취원율을 높이기 위해 추진 중인 사업은 무엇일까요? (주관식)

7월 독자퀴즈 정답과 당첨자

● 정답
● 당첨자

1. ② 용두산엘레지 / 2. ③ 하늘강 / 3. 위카페다온 / 4. 캠퍼스형 방과후학교
진주 금성초 하시완 / 창원 전안초 김경모 / 창원 자은초 김주연

독자퀴즈 정답 보내실 곳

매월 제시되는 독자퀴즈의 정답과 이름, 연락처, 주소, 소속(교직원 및 학생인 경우)을
기재해 보내주시면 채택된 분께 **2만 원 상당의 문화상품권을 드립니다.**

● 제출 기한 2023년 8월 20일까지
● 보내실 곳 경상남도교육청 홍보담당관 전자우편(gne8@hanmail.net)
● 문의 055-278-1784

여러분의
이야기를
기다립니다

‘아이좋아 경남교육’을 읽고 느낀 점이나 좋았던 점 또는 소개하고 싶은
여러분의 이야기(자유 형식)를 아래로 보내주세요.

● 제출 기한 2023년 8월 20일까지
● 보내실 곳 경상남도교육청 홍보담당관 (51430)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중앙대로 241
● 전자우편 gne8@hanmail.net
● 전화번호 055-278-1784

경남교육 SNS

경남교육 정책과
주요 행사를 실시간으로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페이스북



카카오톡



카카오토리



인스타그램



유튜브



블로그



아이좋아
경남교육 웹진

2050년까지 탄소 배출량을 '0'으로 균형화하는 것

탄소중립

지구온난화의 가장 큰 원인은 이산화탄소(CO²) 배출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경상남도교육청의 생태전환교육

환경교육
특구

환경교육
선도학교

기후천사단,
실천교사단,
학부모그린멘토

에·플
다이어트

※ 탄소중립: 이산화탄소를 배출한 만큼 이산화탄소를 흡수하여 실질적인 탄소 배출량을 '0'으로 만든다는 개념